



##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09년 2월  
석사학위논문

중 · 장년층의 노후주거선호도에  
관한 연구

- 노인복지주택을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이 광 선

# 중·장년층의 노후주거선호도에 관한 연구

- 노인복지주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Housing Senior Preference of the  
Middle-Aged and the Elderly

- Focusing on Senior Welfare House -

2009년 2월 25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이 광 선

중·장년층의 노후주거선호도에  
관한 연구

- 노인복지주택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오을임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이 광 선

# 이광선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2008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목 차

## ABSTRACT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제2장 이론적 배경 .....	4
제1절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의의와 유형 .....	4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의의 .....	4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유형 .....	6
제2절 주거선호 개념 .....	7
1. 주거선호 개념 .....	7
2. 선호도와 욕구 .....	8
제3절 외국의 동향 .....	11
1. 일본 .....	11
2. 미국 .....	14
3. 스웨덴 .....	18
4. 시사점 .....	21
제3절 선행연구 .....	24
1. 선행연구 요약 .....	27

제3장 조사설계 .....	28
제1절 자료수집 .....	28
제2절 조사도구 .....	28
제3절 자료분석 방법 .....	29
제4장 실증분석 .....	30
제1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30
제2절 중·장년층의 노후 생활에 관한 내용 .....	32
제3절 중·장년층의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인식 .....	51
제4절 중·장년층의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입주방법 .....	60
제5절 중·장년층의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주거환경 .....	75
제6절 노후대비 유무에 따른 노후주거 선호도 차이 .....	87
제7절 분석결과의 논의 .....	93
제5장 결    론 .....	97
제1절 분석결과의 요약 .....	97
제2절 연구의 함의 .....	101
참고문헌 .....	103
설    문    지 .....	104

# 표 목 차

<표 2-1> 시설종류 비교표 .....	6
<표 3-1> 설문지의 구성 .....	29
<표 4-1> 일반적 사항 .....	31
<표 4-2> 자녀의 수 .....	32
<표 4-3> 자녀계학적 특성별 현재물가 기준 계획 중인 노후생활비 .....	34
<표 4-4>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 염려요인 .....	37
<표 4-5> 노후대책 .....	39
<표 4-6>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대비 월 저축금액 .....	41
<표 4-7>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 부양책임 .....	44
<표 4-8>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자녀와의 동거의견	47
<표 4-9>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생계 대책 방법 .....	50
<표 4-10>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복지주택개발 보급필요성.....	53
<표 4-1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생각 .....	56
<표 4-1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입주 동기 .....	59
<표 4-13>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입주 시기 .....	62
<표 4-14>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입주방식으로 바람직 한 것 .....	65
<표 4-15>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에 입주시 선택할 비용부담 유형 .....	68
<표 4-16>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에 입주시 1인기준 희망보증금 .....	71
<표 4-17>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입주 시 1인 기준 희망 월 이용료 .....	74
<표 4-18>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에 거주하길 원하는형태 .....	77
<표 4-19>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의 적당한 거주 세대수 .....	80
<표 4-20>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의 입지 환경으로 바람직한 것 .....	83
<표 4-2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입주를 고려할때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싶은 것 .....	85
<표 4-22> 노인복지주택 입주를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싶은 것 .....	87
<표 4-23> 노후대비 여부에 따른 현재 물가 기준 노후생활비 .....	88
<표 4-24> 노후대비 여부에 따른 노후 염려 요인 .....	89
<표 4-25> 노후대비 여부에 따른 월 저축 금액 .....	89
<표 4-26> 노후대비 여부에 따른 노후부양책임 .....	90

<표 4-27> 노후대비 여부에 따른 자녀와의 동거 의견 .....	91
<표 4-28> 노후대비 여부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개발 보급 필요성 .....	91
<표 4-29> 노후대비 여부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생각 .....	92
<표 4-30> 노후대비 여부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입주동기	·93

## 그림 목 차

<그림 2-1> 유료노인주거시설의 기본적인 공간 구성 · .....	13
--	----

# ABSTRACT

## A Study on Housing Senior Preference of the Middle-Aged and the Elderly - Focusing on Senior Welfare House -

Lee Kwang Sun

Advisor : Prof. Oh Eul-im Ph.D.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Nowadays our country highlights the need only for the development and the distribution of the silver industry or the senior citizens' well-fare and housing facilities. But the distribution of the facilities is still in the first stage. Private enterprises have not revitalized the towns for the aged and the towns are considered to be expensive, while the damage of the residents by becoming the bankrupt of the construction enterprises has caused more and more strong distrust for the private enterprises.

Today's young-decreasing-but-old-increasing structure of our country shows that the social burden of the young who have to support our country is getting heavier and heavier. This structure is making the senior citizen's problem more and more serious. As the wants for the house, one of the common desires of the elderly, are the material necessities for maintaining their existence, private enterprises and the government have to divert the recognition of distrust, cooperate each other to

develop the senior citizens' well-fare and housing facilities.

In order to overcome this problem, it is not necessary to develop facilities only for the existing middle class but necessary to develop the differentiated facilities which anyone can move in and spend his or her comfortable old age in. Therefore in this research I regard the inexpensive senior citizens' well-fare houses made by the private enterprises as the preferred custom-made well-fare housing development project. The following is about the housing preferences.

This research showed that someone who has economic power in the old age, is in the 30-under 60 age, and lives in Gwang-ju, was questioned by an age group. Each age group was given 80 copies. All of them were 240 copies. They are randomized. There will be different viewpoints for the senior well-fare and housing from various-aged people and from their present situation of either they have prepared for the old age or no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o live a happy life of the old age in the pre-aging citizens, they think that savings is the highest. Its rate is 30.3 percent, then comes a national pension and private pension in that order.

Second, the most anxiety in the old age is the economic problem. Its rate is 49.5 percent and then comes health problem. Its rate is 45.7 percent. That's because the old feel the uneasiest about their economic problem and health problem. At this, It showed us that we were worried about the degeneration of the physical function and the loss of social role when old.

Third, In the answer to the responsibility supporting the old age, to live without other's help is 75.5 percent, not to live with their children 61.2 percent. As a result, they had the most reply not to live with their offspring when old.

Fourth, if you looked into the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which were divided generally, specially about the necessity for the developing and distributing in the

senior citizen's well-fare housing, it was found that the necessity for the developing and distributing in the senior citizen's well-fare housing was about 85 percent.

Fifth,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the analyzing result of the senior citizen's well-fare housing was as follows. 53.7 percent of them said, after considering the conditions of location, facilities, and the cost, they would decide. As an inducement to move in, medical service and the service for the old are highest. Its rate is 56.4 percent. 42.0 percent said they would move in when they are in sick condition, 36.2 percent saying when they are lonely.

Sixth, the type of the housing of the old who wanted to live in was the country housing. Its rate is 70.7 percent. The number of the fitting family of the senior citizen's well-fare housing was less than 30 families. Its rate is 55.9 percent. 30-under 60 families is 33.0 percent. As for the environment to move in, the type of suburban cities is 55.9 percent. then came country type in that order. Its rate is 31.4 percent.

It can be inferred from the survey that the facilities are not the place you go when you're in ill condition or when you need others' support but the place which could lessen the economic burden, keep the senior citizens' health, and could be spent more comfortable and easier old age in. It was the necessary that the government authorities should systematize a special hospital facilities, have the responsibility of the quality of life or health of the old who moved in the housing through the various lectures on artistic topics or convenient facilities. As the highest preferences are for the senior citizens' well-fare housing, it needs more national backing ways such as insuring profits to the private enterprises, furnishing the old with government subsidies, loan at cheap interest, and tax favors.

We have found tha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housing preferences of the elderly who lived in big city and those of the small towns. Thus I thought that each area needed its fitting a relay of facilities. For that reason, I have studied the

housing preferences limited the city of Gwang-ju. At this, I hope that a private enterprise or an individual will develop or distribute the fit facilities of the housing preference in Gwang-ju. For that object, this thesis will hold the actual proof of great worth.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목적

우리나라는 70년대 이후 짧은 기간에 눈부신 경제성장과 의학의 발달 등으로 사회발전과 장수라는 행복한 비명과 무거운 숙제를 떠안게 되었고. 이러한 결과로 우리는 고령화라는 크나큰 짐을 지게 되었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여성들의 여권신장에 힘입어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산통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급속한 사회의 고령화 진행은 오랜 시간에 걸쳐 고령화 사회를 준비해 온 선진복지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그만큼 준비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김태일, 2008:21). 전통적 가족구조화에서는 노인이 소유한 경험과 지식이 자녀들의 생활에 기본이 되었으나 산업사회의 가치관인 능률과 효율은 노인의 지식과 경험을 쓸모없게 만들어 결국은 노인계층을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계층의 존재로 전락시켰다. 특히 산업화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핵가족화 추세는 경로효친사상이 퇴색되고 노인들의 지위를 저하 시키면서 현대사회의 노후부양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최순남: 297).

또한 경기침체의 여파로 기업체들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노인들의 사회생활 영역이 좁아짐에 따라 노인층에서는 빈곤, 고독, 질병, 역할상실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 속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노인문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현재 극소수의 노인만이 혜택을 보고 있을 뿐 핵가족으로 인한 다양한 노인층의 문제가 방치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므로 노화 할수록 사람들의 사회적 활동영역이 축소되므로 대부분의 시간을 거주 공간 위주로 보내게 되는데 특히 젊은이들에 비해 노인들의 주거공간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이 약화 된 노인의 삶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면 기능적인 면과 함께 정서적인 면을 고려한 주거가 필요하다. 주거(住居)란 인간의 일상생활을 담고 있는 용기이며 삶의 질을 성취 하기위해 만들어 온 가



장 기본적인 환경으로 삶의 질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위해 존재하는 도구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김재일 외 22인, 2001). 그러므로 주거가 안정되지 못하거나 부적합하면 노인의 삶에서는 치명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토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2007년도 노인 가구 주거실태조사」 만65세 이상 노인 9724명중 67.1%가 자녀와 따로 거주하고 싶다고 대답하였으며, 39.4%는 자녀 주택의 거리와 상관없이 따로 살고 싶다고 답하였으며 27.4%는 가까운 곳에서 별도로 거주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또한 장년층 5,08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82%정도가 노인이 되었을 때 자녀와 분리 거주하려는 추세가 젊을수록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국토연구원, 2008.8). 이와 같이 경제적 여건만 충족된다면 자녀들과 독립하여 자신들만의 노후생활을 즐기려는 노인인구가 증가 하면서 이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의 다양화로 여러 계층의 노인들의 욕구충족을 위해 본 연구자는 고령화로 문제에 노출될 노인에 대한 숙제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층들의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노후 생활의준비 실태 및 노후주거선호도에 대해 고찰한다. 그러므로 노인의 문제를 과거에는 가족이 해결 하는 방법에서 지금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에게 입주선호도에 맞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1. 연구범위 및 방법

노인복지법에 규정한 노인주거복지시설 중에서 노인복지주택을 중심으로 중·장년층의 노후주거선호도에 따른 공급방향에 관한 연구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의 범위를 정하였다.

중·장년층의 1인당 노후생활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노후에 가장 염려되는 것은 무엇이고, 현재 노후대책을 위한 월 저축은 어느 정도 하고 있으며, 노후의 생계대책은 무엇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노후 부양책임의 의무는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자녀와의 동거 의사는 있는지, 노인복

지주택의 개발보급 필요성을 느끼는지,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입주 의사는 있는지, 입주의사가 있다면 동기는 무엇인지, 입주 시기는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입주방식이나, 비용부담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주거형태를 원하는지, 노인복지주택의 세대수는 몇 가구 정도가 적당하고 입지환경이나, 입주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를 위하여 문헌고찰과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중·장년층의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령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방법은 연구자의 의도대로 직업에 따라 성별에 따라 소득에 따라 학력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생각 또한 다를 것이다. 라는 가정 하에 다양한 직업과 연령층에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또한 이론적 배경과 문헌연구 및 정부통계자료, 보건복지부자료, 한국노인문제연구소에서 발행한 자료, 국내의 전문서적 등 노인복지주택에 관한 자료를 통하여 미래수요층의 욕구에 맞는 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설문을 하였다.

## 제2장 이론적 배경

### 제1절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의의와 유형

####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의의

60세 이상의 노인이 심신적, 사회적, 경제적 등의 이유로 가족과 생활하기가 어려울 때, 그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가 경영하는 시설이라고 간략하게 정의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과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인들에게 수용, 동원 및 기타의 방법을 통해서 보호, 치료, 자립 등의 노인복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목적으로 설치된 장소, 시설, 건조물 이라고 할 수 있다(조남규, 2003).

이에 관련한 노인복지법 제 2조의 노인복지의 기본이념을 살펴보면,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따라서 노인복지는 노인생활의 일부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인생활 전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복지는 1차적으로 수혜대상자인 노인들에게 폭넓게 대응해야 하며, 2차적으로 지역의 특성이나 실태를 반영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즉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택, 환경보장, 노인복지서비스 보장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고령화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이혜원,1996, 손명숙, 2006에서 재인용).

21세기의 주요이슈가 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는 공유, 공용, 공존이념의 실천을 위한 물리적 환경계획의 패러다임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고령자 주택 및 주거환경은 대다수 고령자의 생활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서의 일상적인생활을 보장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노말라이제이션

(Normalization)이념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김태일, 2008;표지).

가정에서 노후를 보내는 노인들이 시설에 들어가서 사는 노인들 보다 노후의 건강과 생활적응에 보다 긍정적이라는 연구들에 의하면 대부분의 노인들이 노후에 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자신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으로 알고 들어간다는 생각보다는 죽음을 기다리는 장소 정도로 생각한다. 그래서 거의 모든 노인들은 노후에 시설에 들어가서 살기를 희망하고 있지 않다(최순남, 2005:387). 따라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시설화율을 낮추기 위해 재가복지 서비스를 확장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으나 장수함에 따라 병약한 독신노인이 증가하여 시설화율은 높아갈 수밖에 없다. 경제수준이 높고 산업화된 나라에서 노인인구의 약 4~7% 정도의 노인들이 시설에서 살고 있다. 동양권의 나라들은 아직 낮은 시설화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다가오는 세대에 노인시설 화율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복지를 위한 재가노인복지 서비스가 시설 서비스보다 긍정적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선진국에서 시설화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독신 노인들의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홀로 사는 연로한 노인들이 노환 혹은 그 외 다른 병으로 죽은 지 1주일 이 되도록 모르다가 뒤늦게 이웃에서 발견하게 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인 것 외에 무의무탁한 노인, 병약한 노인, 가족간의 갈등으로 인해 갈 곳이 없는 노인이 가야 할 곳은 노인시설이다. 이러한 시설화율은 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라 점차 증가될 것이다(최순남, 2005:403).

선행논문들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노인부양에 대한 전통적 의식이 희박해지고 핵가족화 및 생활환경의 변화로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독립을 요구하는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노인들의 소득향상으로 연금제도와 각종 사(私)보험의 준비로 노년을 노인복지주택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선호도가 점점 높게 나타남에 따라 수요인원에 맞는 시설확보와 선호도에 의한 다양한시설이 요구되고 있다.

##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유형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종류는 다음과 같다 (08. 4.4일부터 적용).

<표2-1> 시설종류 비교표

	변 경 전	변 경 후
노인주거 복지시설 종류	- 양로시설 - 실비양로시설 - 유료양로시설	- 양로시설(통합)
	- 실비노인복지주택 - 유료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주택(통합)
		- 노인공동생활가정(신설)

\*출처 : <http://www.mw.go.kr/front/jc/sjcoiomn.jsp>

### 가. 노인주거시설의 종류

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 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위와 같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명칭을 통합 개편하였다.

### 나.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하 '입소자격자'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소자격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의 자라 하더라도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또한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 입소자격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차한 자는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매매·증여나 그 밖에 소유권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대할 수 없다.

노인복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도 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상속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한 자라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없으며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다.

#### 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시장·군수·구청장”이라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8.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설치·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 제2절 주거선호 개념

### 1. 주거선호 개념

주거에 대한 선호는 개인이나 가족이 원하는 집의 특성, 또는 다양한 가족의 특성에 따라 좋아하는 양상은 어떻게 다른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내고자 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주거선호란 여러가지 부문별로 구체적인 주거특성에 대한 개별소비자의 수용-거부 정도라고 정의 할 수 있다(조은정, 1994). 또한 주거선호는 상황의 제약에 따른 산물로서 공식적인 법의 변화, 현재의 문제상황, 경제적, 기술적수준의 상승, 가족 발달적 변화 등에 기인하며 단기적으로 가치변화가 주거선호를 유도하고 오래동안 이것이 정착하게 되면 주거규범의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 주거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기준이 주거가치의 개념이라면 주거선호는 일정한 주거특성에 대한 좋고 싫음이다. 주거가치

의 연구결과가 주거계획에 있어서 보편적인 설계지침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주거선호는 구체적인 설계에 도움이 된다. 이와같이 개인의 주거선호는 그것이 주거에 대한 개인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준비상태를 내포하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는 보다 좋은 주거공급과 바람직한 주거문화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개념이 된다(이경희외, 1985, 박미영 2008에서 재인용).

Hemple과 Tucker(1979)는 주거환경에 대한 개인의 선호구조는 두 가지 가설로 설명 하였다. ①경제적경쟁가설(economic competition hypothesis)은 예산비용과 소득에 따라 주거입지와 분화가 이루어진다. 교통비와 주거비에 의한 도심접근성과 쾌적한 주거공간사이에 대체(trade-off)선택모형을 세우는 지리학, 주거경제학분야의 연구가 대부분 이러한 경향이다. 즉 소비자의 유효수요를 분석함으로써 주거선호를 추정하는 것이다. ②사회적선택가설(social choice hypothesis)은 개인이나 집단의 가치, 요구, 열망, 선호등에 의하여 주거지의 사회경제적 분화가 일어난다. 즉 비실현적 소비자 수요까지도 분석하여 주거선호를 추정하는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주거선호의 개념을 경제적 경쟁가설로 접근할 것인지 사회적 선택가설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다음과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경제적 경쟁가설에 입각한 주거선호의 개념을 따르게 되면 자원과 시장상황 등 개인이 처한 여러 가지 제약을 전제로 한 후의 소비자 행동결과를 분석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주거상태가 가장 정확한 소비자 주거선호의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다(Smith, Barry, A Josep,1980, 이영래, 2005에서 재인용).

## 2. 선호도와 욕구

선호도의 사전적 의미는 좋아하는 정도를 말한다. 즉 다수의 대안 가운데 특정 대상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는 경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동의도(behavioral intention)의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욕구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무엇을 얻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바라는 일을 의미한다. 현재의상황과 미래의 자신이 원하는 상황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말한다. 선호도의 정의가 여럿중에 어느 하나를 가려서 좋아하는 정도라면, 여러가지 중에서 선별하기 위한 기준은 그것을 선택하여 결정하는 그 사람 개개인의 욕구가 충족 되었

을 때, 여럿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선호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욕구의 정도가 어디에 귀착되어 있는가를 파악하여야 한다(2006, 남순옥). 따라서 선호와 욕구의 차이처럼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욕구 조건을 선별하는 과정으로써 분석할 수 있으며 선호도에도 차이가 있다는 전제하에 연구가 진행 된다. 이에 따른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욕구에 관하여 이론을 고찰 해보겠다.

Abraham Maslow는 Rogers나 다른 인본주의자들과 같이 인간을 자아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는 존재라고 규정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두 가지 경향성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첫째, 생존적경향(survival tendency)은 기본적욕구 혹은 박탈동기(deprivation motivation)라고도 하며, 인간의 생존을 단순히 생리적 차원에서 유지시키려는 경향이다. 여기에는 생리적욕구, 안전욕구, 소속과 사랑의 욕구 그리고 자존감의 욕구가 포함된다. 한 개인이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신경증이 유발된다.

둘째, 실현적 경향은 성장욕구(meta need), 즉 자신의 잠재능력, 기능, 재능을 발휘하려는 욕구로서 생존적 경향이 충족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Maslow, 1970). 인간의 욕구는 그 중요성과 강도에 따라 위계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고 특정시기에 강하게 나타는 욕구가 있긴 하지만 모든 욕구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가장기본적인 생리적욕구(physiological needs)는 인간의 욕구 중에서 가장기본적이고 강하며 분명한 것으로, 음식, 물, 공기, 성, 추위나 더위로부터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욕구으로써 주거의 욕구가 이에 해당된다. 매슬로우의 이 단계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더 높은 단계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시도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주거의 욕구의 중요성이 부각된다고 볼 수 있다(김동배외, 2005:443).

사회적욕구는 모든 사람들이 생존, 성장, 충족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요건들이다. 이 요건들은 주거, 영양, 보건, 지식, 소득, 사회참여, 개인의 자유 같은 것을 포함한다. 욕구를 정의하는데 중요한 문제는 ‘누가 욕구의 기준을 설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사회문제를 욕구의 측면에서 접근한 브래드쇼(John Bradshaw)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욕구를 네 가지 유형으로 설명 하였다(정무성의, 2001:65).

규범적욕구(normative need)란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 규정된 욕구를 말한다. 관습이나 권위, 일반적 여론의 일치로 확립된 표준을 의미하는 이 욕구는



기존의 자료와 유사한 지역사회 조사나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 제안된 욕구이다. 이 욕구에 장점을 보면 기존의 서비스 기준과 비교 가능한 비율로 표시되는데 실제비용이 특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욕구가 존재한다고 본다. 계량화가 쉽고 구체적인 변화의 표적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며, 반면, 여러 욕구단계가 지식, 기술, 가치변화에 따라 변화하기 쉽다는 것이다.

인지적욕구(perceived need)는 개개인이 느끼는 욕구 선호와 같은 것으로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욕구로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인지적 욕구는 대체로 사회조사를 통해 개인별 응답자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물어보는 방법으로 욕구를 파악한다. 인지적 욕구가 개인 각각의 반응에 따라 기준이 변하며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한다는 단점을 가지고는 있으나, 소비자의 잠재적이고 실질적인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방법이다.

표출적욕구(expressed need)는 서비스의 수요에 기초한 욕구이다. 즉 어떤 것에 대한 수요에 의하여 느껴진 욕구가 행동으로 표출된 것이다. 개인이 서비스를 얻기 위해서 실제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가에 대한 여부가 핵심적인 변수이다. 이 욕구에 강점은 인지한 욕구를 실제로 행동에 옮기게 되는 상황을 강조하는 것이며, 반면 이 욕구를 가진 모든사람이 서비스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이 욕구는 원조를 구하는 사람들의 수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욕구의 개념이다.

상대적욕구(relative need)는 다른 사람이나 타 지역과 비교해서 정해지는 욕구이다. 욕구는 특정한 기준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의 욕구와 유사한 다른 지역에 존재하는 서비스와 차이에서 측정되는 비교욕구로서 비슷한 다른 지역에서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해당 지역에서 제공받지 못한 욕구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상태에서 두 집단의 욕구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지역사회에서 존재하는 서비스의 수준과 비슷한 지역에 존재하는 서비스 수준과의 차이로 측정된다.

이상에서 설명 한 바와 같이 선호도는 개개인이 욕구하고 생각하는 것, 또는 욕구로 되어야 한다고 느끼는 것을 분별하여 선택하는 것이다. 사회적욕구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누가 기준을 정하는가'가 가장중요한 문제이다. 규범적욕구와 비교욕구를 규정하는 데는 전문가 또는 사회가 주체가 되지만, 인지적욕구와 표출적욕구는 욕구를 가진 당사자가 주체가 된다. 표출적욕구는 서비스의 수요에 기초하지만, 인지적욕구는 개개인이 느끼는 욕구로써 선호도에 기준이 되는 욕구이다.이러한 선호도는 욕구를 가진 당사자의 의견을 파악하는 것임으로써 인지적욕구와 같이 사회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있다

(2006, 남순옥).

## 제3절 외국의 동향

### 1. 일본

#### 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특징 및 입주방식

노인주거시설의 기능은 노인들에게 필요한 의료시설, 여가시설등 각종 서비스제공시설과 주택으로 구성된 복합주거단지이며, 우리나라 용어로는 ‘노인촌’ 또는 ‘노인주거단지’로 해석하는것이 적합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고령자들이 집단적 혹은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주거시설의 의미로 사용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양로원이나 요양원과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다른 종류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유료화된 서비스시설이다. 유료노인주거시설은 입주자들이 지불한 입주금만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입주자들도 저소득층이 아닌 중간 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노인들이 된다.

둘째, 다양한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단지시설이다. 양로원이나 요양원이 단순한 수용기능의시설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실버타운은 의료시설과 각종 오락시설, 체력단련시설 등 각종 서비스시설을 갖추고 있어 단순 거주시설의 차원을 넘어 입주자들의 2차적인 욕구까지도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이다(김태일, 2008:251-252).

입주방식으로는 ① 분양방식은 주거부분에만 한하여 소유권을 가지며 노인 계층에 한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것으로 공용부분의 소유권은 갖지않기 때문에 각종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② 종신이용권방식은 말 그대로 종신에 걸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으로 소유권은 갖지 않으나 일정기간 내에 사망 혹은 퇴거할 경우 입주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제외한 입주금을 반환해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③ 회원권방식으로는 기본적으로 종신이용권방식과 같은 것으로 주거부분과 공용부분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골프회원권과 마찬가지로 매매할 수 있으나 그 대상은 노인계층에 한정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④ 임대방식은 흔히 말하는 전세와 유사한 것인데 전세금에 해당되는 입주보증금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주거부분의 거주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시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약을 맺어 서비스제공비용과 주거비를 매달 지불하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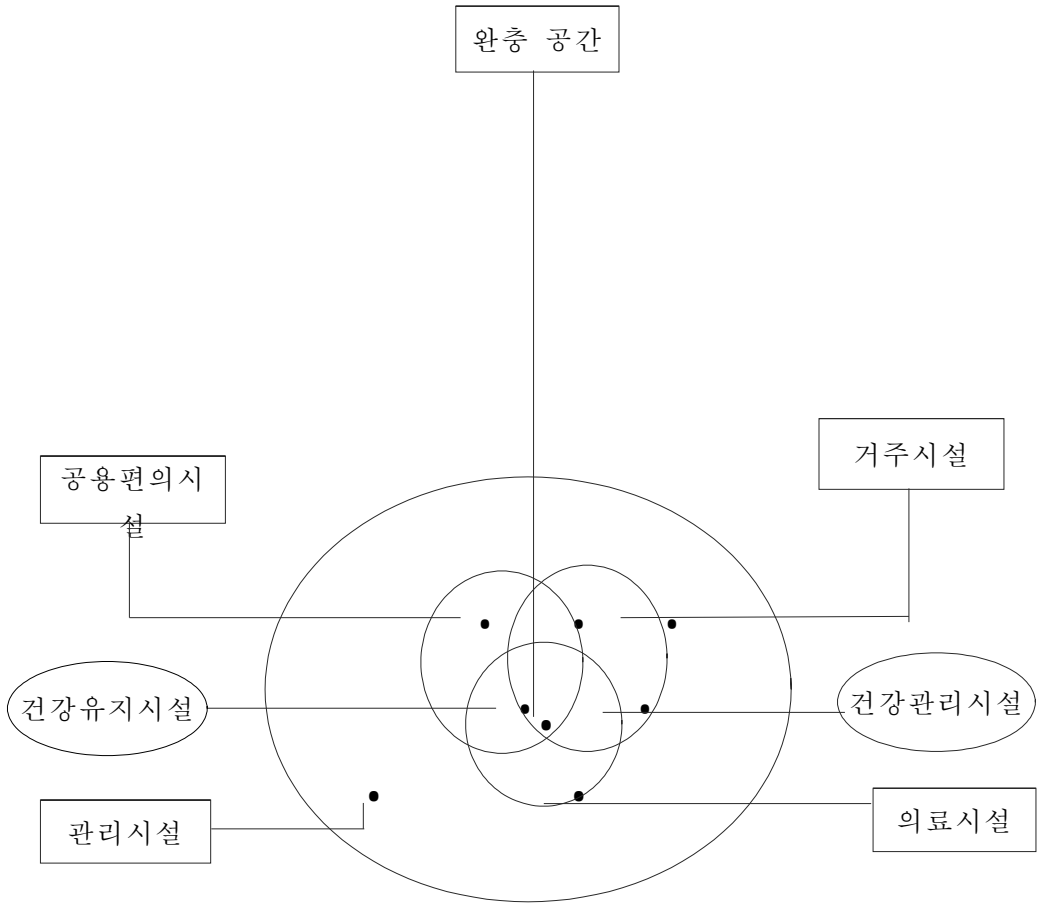
#### 나. 공간적 특징과 제공서비스

노인주거시설은 기본적으로 종래의 집합주택과 별다른 점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공간계획상 가장 큰 특징으로 거주공간의 설계 및 의료, 보건시설, 생활을 지원하는 공용시설부분이 충분히 배려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 시설기능의 오픈
- ▶ 생활관련서비스의 제공
- ▶ 여가활동의 충실
- ▶ 활발한교류의

- ▶ 거주기능의충실
- ▶ 신체기능변화의대응
- ▶ 주거단위의 다양화

유도



- ▶ 거주, 공용 의료시설의 종합적 관리
- ▶ 시설내의 간호시스템화
- ▶ 거주자의 상담, 면접
- ▶ 지역 내의 의료시설과의 연계
- ▶ 정기적인 활동계획 추진

<그림 2-1> 유료노인주거시설의 기본적인 공간구성 (김태일, 2008:255)

거주부분은 크게 부부용 주택과 독신용 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고, 부속적

인 공간으로 가족면회시 숙박을위한 객실(Guest Room)도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택내에는 간단한 취사공간, 화장실, 욕실, 수납공간 그리고 고령자의 신체적인 특징상 안전사고에 대비하기위해서 12시간동안 현관출입 혹은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적으로 관리사무실로 연락되는 생활리듬체크시스템 그리고 긴급시의 연락벨 등이 갖추어져 있어 일상생활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공용부분은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부분으로 식당, 공동욕실, 집회실, 오락실, 도서실, 체육실, 연수실, 교실, 이발소 및 미용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의료 및 간호부분은 간병을 필요로 할 때 시설 내에서 충분히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병실 등을 구비한 진료소, 병원 등을 갖추고 있거나 인근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대응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관리부분은 거주부분, 공용부분, 의료 및 간호부분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분야로, 거주자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 및 사업기획 그리고 시설 직원의 관리 등을 수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료노인주거시설은 주거부분과 여러가지 기능의 공용시설로 구성된 복합시설의 성격인데, 공용시설에서는 다음의 표와 같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자 유료노인주거시설이 새로운 서비스 형 노인주택으로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다(김태일,2008:256). 또 하나 경영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미국의 노인 장기보호시설은 주거단위의 임대(lease of living unit)의 기본 틀 위에 서비스로 별도 납부를 병행하는 데 반해, 일본의 장기보호시설은 임대, 분양, 종신이용권, 연금운용 등의 다양한 방법에 의존한다는 것이다.(김달수, 2003)

## 2. 미국

### 가. 미국의 유료노인복지시설

미국은 1950년대에 이미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00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이 12.4%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은 2차 대전이후 “노인주

택”(Elderly housing)이 등장하였으며 1960년대 후반 미국중서부 지역의 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개발 추세와 함께 사회, 경제적인 영향력에 의해 자연발생적인 은퇴촌(Natur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ies:NORCs)이 개발되면서 노인주택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개발업자들은 노인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하려는 추세를 사업기회로 이용, 본격적으로 노인을 위한 주택(Housing for Seniors)을 개발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종교기관들을 중심으로 연속적 보호 체계형 노인공동체(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 CCRCs)가 등장하였다. 초창기 CCRCs는 운영단체의 종교적인 성격이었으나 이후 재정적위기를 맞이함에 따라 일반기업체가 개입하게 되었으며, 운영방식도 다양화 되었다. 1990년대 말과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생활지원주택(Assisted Living Residences)이 부상하게 되었다. 현재 미국의 민간 노인주택의 유형의 CCRCs와 생활지원주택(AL)외에도 Seniors Apartments, Congregate Seniors Housing이 있다.

미국의 민간 노인주택시장은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노인인구증가 추이와 노인주택건설 동향을 감안 할 때 향후 노인주택시장은 2000년에 1,000억 달러에서 2010년에는 1.6배(1,590달러), 2020년에는 2.7배 (2,470억 달러) 그리고 2030년에는 4.8배(4,900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http://blog.naver.com/polvdalai>).

### (1) 노인주거시설과 노인요양시설

미국에서는 노인을 소비자로 보는 주거산업이 활발하다. 이들 사회에서는 정년퇴직 후 연금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대화, 취미, 오락 활동도 함께 하며 여생을 즐겁게 보내려는 노인들의 비율이 적지 않다. 이러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산업 중에는 노인전용아파트, 노인촌락 등이 있다. 미국에서는 2,600개소 이상의 분양형 또는 임대형 운영방식에 의한 노인촌락이 있는데 그 중 대부분이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플로리다 등 기후가 온화하고 경치가 좋은 곳에 집중되어 있다. 아리조나주훤닉스 근교에 있는 썬시티(sun city)는 1960년대 초 이 촌락의 건설이 착수된 이후 현재는 노인이 집단 주거하는 도시로 탈바꿈하였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북쪽에 가면 Weed라는 인구 3,000명의 작은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인구의 반 이상은 65세 이상 노인이다. 이 도시의 관공서나 상점은 노인 직원 혹은 자원봉사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도시 축제도 노인들에 의해 운영된다. 공원에서는 70대 남녀가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으며 노인들이 집에서 만든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별도의 상점이 있기도 하다. 물론 이 도시에 노인들이 그토록 많은 것은 타 지역에서 은퇴한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하였기 때문인데 이곳으로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이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온화한 기후와 값싼 물가, 그리고 주변의 노인들이 쉽게 찾아갈 휴양지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듯 노인들이 어느 특정한 곳에 모여 사는 이유는 노인전용 주거시설에서의 거주, 은퇴농장 형성, 혹은 온화한 기후와 아늑한 환경으로의 이동이 주류를 이룬다(배남순, 2004:24).

#### 나. 미국의 노인복지시설

① 공동주택(Public Housing)은 1960대 이후 노인인구증가에 따라 주택 및 도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동주택에 미국노인의 3% 정도가 살고 있다. 예로 빅토리아 프라자인데 이 건물은 1960년 텍사스주의 산 안토니오에 세워진 9층 건물이다. 이 주택은 노인들이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건물이다. 빅토리아 프라자에 처음 이주한 노인들은 그 시설과 환경의 만족이 결혼시절의 만족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은 자신의 생활을 개선하고 사회적으로 동기를 자극받기를 원하는 노인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만족감을 주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② 공원주택(Mobile Home Park)은 연금수입이 낮아서 빅토리아 프라자 같은 주택에 들어갈 수 없는 퇴직자들이 선호하는 주택이다.

③ 은퇴공동체(Retirement Community)는 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경치 좋고 기후가 따뜻한 지방에 공원주택촌을 건설하여 경제적으로 부유층에 속한 노인들에게 임대 혹은 분양하고 있다(최순남, 2005:418-419).

은퇴촌은 필요에 따라 몇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활동적인 노년층을 위한 활동적 은퇴촌(Active Adult Community-Resort style), 도움없이 살 수 있

는 독립주거형 은퇴촌(Independent Living)으로 집이나, 콘도, 아파트, 또는 타운 하우스에 거주한다. 연속 (24시간)보호 은퇴촌(Continuous Care)이 있고, 제3자 의존은퇴촌(Assisted Living), Nursing Home, 치매전용시설이 있다. 한국의 소위 xx타운 이라고 부르는 은퇴자 집단거주 형태는 의사, 간호원이 상주하는 Continuous Care 형태이고, 농촌에 산재한 은퇴촌은 독립주거형(Independent)으로 구분 할 수 있을 것 같다.

미국의 베이비부머들의 의식조사결과는 앞으로의 미국 은퇴형태의 방향을 가늠해 볼수 있다. 전체적으로 그들은 은퇴에 필요한 충분한 돈이 될 때까지 은퇴하지 않겠다고 했다. 2001년 그들은 55세에서 64세 사이에 은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05년 조사에서는 65세에서 70세사이 은퇴할 예정이며, 그 중 60%는 65세전에 은퇴예정이며, 17%는 은퇴없이 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퇴가 생활의 질을 증진 시킬 것 이라고 생각하는 베이비부머는 2001년 27%에서, 13%로 줄었다. 20%의 여성 응답자는 오히려 생활의 질이 떨어질 것 이라고 답했다. 베이비부머들은 은퇴 후에 어떤 형태든지 장기만성질환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장기요양 보험을 갖지 않았으며, 국가가 자신들이 늙었을 때 돌봐줄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갖고 있었다(<http://cafe.naver.com/wooamhr/1193>).

④다세대주택 악세사리아파트(Accessary Apartment)라는 다세대 주택은 자녀들이 성장하여 집을 떠난 후 그들이 쓰던 여러개의 빈방들을 한 개인이나 부부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개조된 넓은 집도 있다.

⑤이코오주택(ECHO-Elder cottage Housing Opportunity)은 할머니집(Granny Flats)이라는 명칭으로 오스트렐리아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을 모방한 것이다. 자식들이 거주하는 집 정원이나 옆에 노인용 간이주택을 새로이 짓고 노쇠현상이 심화된 상태의 노부모를 그곳에 모셔 일상생활을 보살펴 주는 거주형태이다.

⑥노인전용하숙집(Boare and Care Homes)은 일반 가정이 하숙을 원하는 노인들을 모셔 생활을 보살펴 줌으로써 노인들을 돕고 경제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 하숙집 형태로 출발했다(조남규, 2003:44).



### 3. 스웨덴

#### 가. 스웨덴 유료노인복지시설

유럽대륙 최북단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위치한 스웨덴은 면적 450만km<sup>2</sup>에 인구 885만명으로 구성된 복지국가이다. 이 나라가 노인복지정책을 본격적으로 체계화 또는 활성화시키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초부터인데, 이러한 정책에 중점을 두기 시작한 배경으로는 인구의 고령화, 가족해체현상의 가속화, 그리고 국민소득증대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스웨덴의 노인복지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992년에 채택된 에델개혁(Adel reformen)과 관련된 정책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 에델개혁은 보건 의료와 복지서비스를 통합해서 하나의 체계 하에 운영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질적향상을 기하면서도 소요예산은 대폭 감축시킬 수 있다는 착상 하에 이루어진 정책으로, 이러한 개혁에 의해서 취해진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노인복지서비스와 관련된 모든업무는 기초자치단체인 코뮌(Kommun)에 이관함과 동시에 이에 소요되는 재원조달권 역시 해당 자치단체로 이관했다.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해서 양로시설이나 요양시설의 규모도 과거에는 큰 규모의 것이었던 것이 소규모의 시설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기초자치단체 구역내에는 시설에 수용할만한 요보호노인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도 그 원인 중의 하나지만 재가복지서비스에 의해서 노인들이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복지예산을 더욱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둘째, 노인복지자원 분배에 관한 기본방향의 전환을 들 수 있다. 종전까지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의료와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주는 정책을 펴왔던 것을 에델개혁에서는 80세이상 후기노령자에게 중점적으로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스웨덴 정부가 이와 같은 정책을 펴 개 된 배경에는 60대 또는 70대의 노인들은 아직 건강상태도 양호하고 활동능력도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생계유지를 위한 연금만 지급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80세가 넘으면 건강상태도 좋지 않아서 일상생활을 독자적으로 해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78.0% 이상은 배우자를 상실한 상태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고 그중 25.0% 내외는 치매 또는 중풍 등의 증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셋째, 의료와 복지서비스 업무를 일원화하였다. 대부분의 여타국가에서는

노인에 대한 의료행위는 의료기관이 담당하고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은 사회복지 전담기구가 담당하는 것을 통례로 하고 있는데 에텔 개혁에서는 고령후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와 간호간병 그리고 복지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하나의 행정체계 속에 통합시킴으로서 노인복지 비용을 감축시켰다.

넷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 또는 의료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의사의 권한 중 일부는 간호사에게 이관하고 간호사의 권한 중 일부는 간호보조원 또는 간병사(care worker)에게 그리고 간병사 업무의 일부는 가정봉사원(home helper)또는 무자격 근로자에게 이관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보다 많은 노인들이 보다 손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의 복지비용도 훨씬 절감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 하겠다. 간호사에게 의료행위의 일부를 부여한다는 것은 안전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의료복지 수요를 보다 신속히, 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소화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에텔개혁에서는 직장에서 은퇴한 노인들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다각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노인들의 사회참여가 활발하면 할수록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노인들 자신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가노인복지 분야에서 유급에 의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거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인적자원 중 48.0% 내외는 60세이상 노인들로 충당되고 있다.

출처 :(<http://www.sweetcare.com>).

## 나. 유료노인주거시설의 제공서비스 종류

### (1) 생활편의 서비스

생활정보제공에는 신문, 주간지, 월간지, PC통신, CATV, 위성방송등의 서비스가 있고 대행서비스로는 민원, 사무, 심부름, 파티, 예약해주는 서비스가 있다. 프론트에서는 안내, 열쇠관리, 대여금고, 우편물 접수 및 발송, 셔틀버스 운행, 주차관리-트렁크룸, 외화환전이 있고 상담서비스로는 보험, 부동산, 재산관리, 법률, 각종생활에 관련된 부분을 서비스 해주고 있다. 가사지원서비스는 옥외청소, 공용시설청소, 세대청소, 세탁, 각종기물대여, 생필품 판매, ATM등으로 생활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다.

## (2) 식사관리 서비스

식사 및 음료제공에는 일반식과 치료식 그리고 주문식 제공이(취사 및 장보기 포함) 있다. 이를 위해 지원해주거나 편의를 위한 시설에는 가족식당과 식사 및 음료배달, 스탠드바가 있다.

## (3) 건강관리서비스

건강유지를 위해서 정기검진(정기건강진단, 건강정밀 진단)과 건강상담, 건강카드관리, 건강증진 정보제공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 또한 의료지원으로는 응급처치, 물리치료, 간호, 간병, 재활치료지원, 치매예방 체제등이다.

## (4) 안전관리 서비스

시설및 운영관리로는 24시간 방재 체제, 층별 무인안전감시 체제, 24시간 방법체제 긴급호출이나 생활리듬 체크는 긴급대응으로 지원하고 있다.

## (5) 문화. 레저서비스

사회활동서비스로는 각종지도교육, 국제교류,지역활동,자원봉사활동, 전시회 개최등을 하고 강좌개설지원으로는 취미. 오락강좌, 교양및 전문지식강좌, 스포츠강좌등이다. 클럽활동지원으로는 문화(연극, 영화, 음악감상), 취미(서예, 도예, 공예, 사진), 오락(카드, 장기, 마작, 빙고), 스포츠(골프, 탁구, 배드민턴, 당구, 게이트볼)

### 나. 스웨덴의 유료노인주거 유형

스웨덴 노인주택 정책의 특징은 일반주택에서는 대응할 수 없는 고령자를 위해서는 노인전용주택으로 서비스 하우스를 포함, 집합주택(Group Housing) 콜렉티브 하우스(Collective Housing)이 제공되나, 대부분의 경우는 별도의 노인용 주택을 공급하기 보다는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잘 정비된 복지서비스 체계를 활용하여 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에서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모한다는 것이다. ① 서비스하우스(service house)1972년에 보건사

회청이 ‘노인용 서비스 하우스 계획 지침’을 발표한데서 비롯한다. 그 지침에 의하면 독립성이 강한 노인용으로 설계된 주택과 노인의 자립적 생활유지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취급할 것이 제시되어 있다. 서비스하우스의 공급주체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인 코뮌이다. ② 그룹하우징(group housing) 심신이 쇠약하거나 중병인 노인의 경우, 자택에서 계속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한 노인에 대하여 시설케어의 주거화를 가장 이상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시도가 바로 그룹하우징(group housing)이다. 이것은 공용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하여 수개 가구를 단위로 하는 거실들이 둘러싼 형상으로 24시간 상주 직원이 대기하는 체제의 소규모 보호주택이다. ③집단주택(collective housing) 수개의 가족이 공간이나 생활을 공동화하고 집단으로 거주하는 형식을 의미한다. 거주자가 참여하고 서로의 생활을 도와줌으로써, 참된 탈시설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발상으로 여겨지며, 노인들에게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해준다(주정주, 2006:28-29).

## 4. 시사점

### 가. 일본

일본 주거정책의 변천 및 주거생활기본법의 제정을 보면 일본의 주택정책 중심기조가 변화되었다. 양에서 질로의 주택정책 전환 및 저 출산 고령화 사회, 세대감소 등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의 전환이 모색되었다. 기존주택정책을 지탱해 온 공영주택주택금융공고, 공단주택제도가 각각 폐지 또는 민영화되고 주택건설계획법의 폐지와 주택건설5개년 계획의 종료 등의 변화가 있었다. 공영주택 및 공적자금주택을 중심으로 한 공급중심의 정책에서 주거권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주생활기본법을 2006년 6월에 제정하였다. 일본 주생활기본법의 기본이념은 국민주생활 기반조성을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에 있다. 이를 위한 네 가지 목표는 ① 안전안심의 주택재고 확보 ② 양호한 주거환경 형성 ③ 주택시장의 환경정비 ④ 주거빈곤자에 대한 안전망구축(고령자 주택의 무장애화율).

유료노인주거시설의 기본적인 공간구성상 가장 큰 특징을 살펴보면 거주공간의 설계 및 의료보건시설, 생활을 지원하는 공용시설부분이 충분히 배려되어 있다는 것이다. 주택 내에는 간단한 취사 공간, 화장실, 욕실, 수납공간 그리고 고령자의 신체적인 특징상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12시간동안 현관출입 혹은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적으로 관리사무실로 연락되는 생활리듬체크시스템 그리고 긴급시의 연락 벨 등이 갖추어져 있어 일상생활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다음의 일례를 보면, 일본 고베시의 한 고령자종합상담기관 컴퓨터에 긴급이메일이 도착했다. 관내에 사는 독거노인 B(여·80)씨 집에 설치한 열 감지센서가 12시간 동안이나 사람의 움직임 탐지하지 못한 것이다. 상담기관에서 일하는 커뮤니티 워커는 즉각 B씨 집에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이 없었다. 10분 뒤 커뮤니티 워커가 B씨 집에 도착해서 집안에서 희미한 사람 소리를 확인한 뒤 가족에게 연락했다. 9시50분, B씨의 딸이 도착해서 복도에 쓰러져 있던 B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다. 덕분에 B씨는 무사할 수 있었다.

최신 전자통신 장비를 활용해 독거노인을 보살피는 케어 시스템이 영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일부 지역에서 실험되고 있다. 유비쿼터스 복지 체계라 부를 수 있는, IT 기술을 활용한 이 케어 시스템은 초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선진국 곳곳에서 장기요양시설 등 고비용 복지체계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적 복지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http://blog.naver.com/yoo21/60057382897>

## 나. 미국

미국에서는 노인을 소비자로 보는 주거산업이 활발하다. 개발업자들은 노인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하려는 추세를 사업기회로 이용, 본격적으로 노인을 위한 주택(Housing for Seniors)을 개발 하였다.

노인주거정책은 대규모 노인촌락에 건강한 노인과 요보호 노인이 함께 공존하는 복합형 주거단지를 지향하는 특성이 있다. 노인촌락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특구조성 정책에 의해 아파트, 공동주택 등의 독립 주거시설과

연속 보호시설, 요양원, 치매센터 등 보호시설이 집합을 이루어 상호 연계 및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대규모 집합 주거지역이다. 다만 이러한 대규모 실버타운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나름대로 Community, Village, Town, County 등의 명칭을 자유롭게 사용한다.

실버타운은 그 지역의 땅 값과 여러 가지 지리적 조건에 따라 그 형태가 아주 다양해진다. 위에서 언급한 노인촌락이나 은퇴촌 처럼 질 높은 수준의 은퇴거주자용주택을 미국에서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첫째, 시설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둘째 시설보호 서비스가 단순한 생활보호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셋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보호 시설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넷째 시설의 자체 재정능력이 대단히 미약하다. 다섯째 시설 종사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시설 종사자 중의 유자격 전문가의 수가 적다.

#### 다. 스웨덴

노인복지자원 분배를 보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의료와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주는 정책에서 80세 이상 후기노령자에게 중점적으로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스웨덴 정부가 이와 같은 정책을 펼치게 된 배경에는 60대 또는 70대의 노인들은 아직 건강상태도 양호하고 활동능력도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생계유지를 위한 연금만 지급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80세가 넘으면 건강상태도 좋지 않아서 일상생활을 독자적으로 해나갈 수 없는 치매 또는 중풍 등의 증세로 인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의료와 복지서비스 업무를 일원화시킨 부분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노인에게 대한 의료행위와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이 분리시켜 담당하는 것을 통례로 하고 있는데 에델개혁에서는 고령후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와 간호간병 그리고 복지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하나의 행정체계 속에 통합시킴으로서 노인복지 비용을 감축시켰다. 그리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 또는 의료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권한을 이관시키는 조치는 많은 노인들이 손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복지비용도 훨씬 절감될 수 있다는

판단 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 4개월을 맞고 있지만 여전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경쟁관계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 요양전달체계는 구호에 그치고 있다. 또한 요양병원들은 진료비 출혈경쟁을 벌일 정도로 무한 생존 경쟁시대를 맞고 있다. 반면 노인의료의 질은 위기 신호가 들어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있어 스웨덴에 의료와복지서비스의 통합관리시스템을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할 것이다.

### 제3절 선행연구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시설의인식도, 시설의 수요와 활성화 방안, 개발보급 필요성, 예비노년층의 경제적 준비 실태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주의식과 선호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정동근(2002)에 따르면 노후대책으로 조사대상자들이 노후생활에 가장 염려되는 문제는 건강, 경제적, 정서적인 문제가 91.9%로 나왔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데에는 노인이 되면 생물학적으로나 심리적 및 사회적으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위축되어 나타나는 결과라고 본다. 자식이 원하면 동거가 23.3%로 나타났으나 자식과 동거하지 않겠다. 32.3%로 나타났다. 아직도 일부는 전통적인 가족관계의 주거형태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다수는 노후에 자녀와 동거하기 보다는 유료노인복지시설 등에서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배남순(2004)에 따르면 실버타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의 질문에 36.5%가 의료 및 휴양시설을 갖춘 노인주거시설이라고 하였으며 23.0%는 실버타운은 부유층 노인들을 위한 주거시설이라고 하였다. 노인주거시설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경(2003)에 따르면 시설에 대한 인식도에서는 일반적으로 유료노인주택하면 실버타운이라고 알고 있고 또한 실버타운은 매우 비싸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버타운보다 저렴한 유료노인복지주택이 많이 건설되기를 원한다고 했다.

본 연구자는 이에 관한 발전방향으로는 실버타운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주거시설로 선호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 개발보급이 시급하다고 본다.

조남규(2003)에 따르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주의식과 선호도를 살펴 본 결과, 남녀 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의 경우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겠다는 43.75%, 여성은 52.78%로 나타났는데, 동거를 원하는 비율이 남성의 경우는 43.75%, 여성은 31.9%로 조사된 결과 확실히 남성이 여성보다 전통적인 가족관계와 전통적인 주거형태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노인주거시설에 대해서는 매우 관심이 높은 편이었으나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선호하는 비율은 34.9%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농촌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응답자들의 다음과 같은 운영주체에 관한 설문을 통한 연구결과로 짐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증거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운영주체를 정부·지방자치단체(54.6%)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며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즉 양로시설이나 실버양로시설이 선호된 것 같다고 밝히고 있다.

노후생활에 대비한 경제적 준비 실태를 살펴 본 결과, 국민연금이나 보험, 개인연금, 저축 등을 노후의 주 수입원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 평균 30만 원 정도를 투자하는 응답자가 50%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조사대상자들은 노후를 위해 경제적 준비를 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김광순(2005)에 따르면 노후에 이용하고 싶은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위치에 대해 응답자(254명) 특성별로 어떤 차이를 갖는지 살펴본 결과, 성별, 건강상태, 주거형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응답차이를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들은 시골전원지역을 선호하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도시근교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를 보면 사회, 문화적인 생활을 중시하는 여성들의 경우 이동적인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때문으로 보고 반면 활동이 좀 더 자유로운 남성들의 경우에는 지역적인 면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남순옥(2006)에 의하면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의 개발보급필요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의 개발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인해 미래를



위한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학력이 높을수록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을 통해 안락하고 독립적인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선호경향이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손명숙(2006)에 따르면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고찰과 더불어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활성화방안으로 첫째,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일반주택과 같은 입주방식을 임대 또는 분양으로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며 민간기업이나 개인뿐만 아니라 노인자신에 의한 조합주택 등 다양한 건설방식과 다양한 구조의 주택이 될 수 있도록 법적규정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인간의 노후생활을 해나가는데 있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기본적욕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부가적복지서비스를 원하는 노인계층의 욕구는 민간자본이 달성하도록 역할을 분담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강수연(2006)에 따르면 입주비용 부담방식으로는 입주 시 보증금을 납부하고 월별로 사용료를 지불하는 월임대형이 196에서 102명(52.0%)가 가장 많이 선호했으며,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전세임대형이 68명(34.7%)이 선택했다. 자기소유를 위해 매입하는 분양형은 15명(7.7%)이었다. 또한 11명(5.6%)이 입주 시 일시불로 입주금을 지급하는 종신형에 응답하였다. 전용면적으로는 6-10평으로 가장 높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시설의 설치 및 운영주체 선호도에서 사회복지법인이 가장 많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종교법인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가장선호하지 않는 주체는 개인사업자와 기업체였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제모(2004, 손명숙, 2006 재인용)에 따르면 일본의 노인복지시설에서 전개되는 유니트케어(unit care)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노인복지시설이 일종의 수용시설이 아니라 가정과 같은 환경과 분위기에서 삶의질(quality of life)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설의 정비가 요구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에 입소 생활하는 노인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약 0.6%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선진국의 5~6% 수준에 비하면 아주 부족한 실정이며 앞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복지시설의 양적인 확충 또한 절실히 요구됨을 강조하고 있다.

## 1. 선행연구 요약

현재 우리나라는 실버산업이나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의 개발보급필요성만 강조 되었지 시설보급의 형태나 노인들의 선호도에 맞는 시설유형이 없다. 이에 있어서는 아직도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기업체들이 실버타운을 건설하여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비싸다는 인식과 더불어 부도로 입주자들의 피해가 생기면서 민간기업에 대한 불신이 커져만 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 하지만 현재 당면한 과제는 민간기업이 참여하지 않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만 의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직면하지 못한 것이다. 현재 사회구조를 보면 연소인구의 감소와 노인인구의 증가는 생산인구의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게 할 것이라고 본다. 주택은 생존을 위한 물질적 필수품이므로 민간기업과 정부가 함께 이러한 불신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고 민·관이 합동하여 새로운 노인복지주택을 개발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보면 중산층만을 겨냥한 시설개발에 관한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졌지만 실행되지 못한 것은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선입견이나 전통적인 관습,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노인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중산층만을 겨냥한 시설개발에서 벗어나 누구나 입주하여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차별화된 시설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자는 민간기업의 참여로 저렴한 노인복지주택이 활성화되고 주거선호도에 맞는 맞춤형 노인복지주택 개발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연령별 주거선호도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다.

## 제3장 조사설계

### 제1절 자료수집

본 연구는 노후에 경제력이 확보될 수 있는 30세 이상 60세 미만의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중·장년층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선정은 연령대별로 각 80부씩 240부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실시하였다. 연령대별로 현재의 상황에서 노후를 바라보는 관점과 또한 현재 노후준비의 유무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견해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자료 수집은 면접방법으로 설문조사의 목적을 알려주고 응답자가 설문항목에 대해 직접 기입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응답시간은 5-1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배포기간은 2008년 10월 28일~11월 01일까지 5일간 이루어 졌으며 240부중 유의한 설문으로 30~39세 70부, 40~49세 72부, 50~59세 45부, 설문 조사 후 확인한 결과 50대에서 본인들의 의견을 모두 체크(V) 반영하여 설문으로 적절하지 않았다.

### 제2절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인 설문지의 구성은 선행연구를(2003. 윤석경, 2006. 남순옥, 외 2명)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일반적 사항을 묻는 질문 8문항과 노후 생활의 준비 6문항,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인식 4문항, 입주방법 4문항, 주거환경 4문항으로 구성하고 조사문항은 아래 표3-1과 같다.

<표3-1> 설문지의 구성

영역	내용	문항번호	문항 수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1-8	8
응답자의 노후생활에 관한사항	1인당 노후생활비 예상액	9	6
	노후에 염려되는 것	10	
	현재 노후대책을 위한 월 저축액	11	
	노후의 생계대책에 관하여	12	
	노후의 부양 책임의무	13	
	자녀와의 동거문제	14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인식	노인복지주택의 개발보급 필요성	15	4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생각	16	
	노인복지주택에 입주의사가 없다면	17	
	입주동기	18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입주방법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입주 시기	19	4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입주방식	20	
	입주 시 비용부담	21	
	입주 시 보증금 및 이용료	22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주거환경	주거시설의 형태	23	4
	거주세대	24	
	입주환경	25	
	입주 시 우선적 고려사항	26	

###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회수된 자료 중 무성의한 반응을 보인 응답자는 통계처리에서 제외시켰으며 여기서 사용된 구체적인 실증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집단 간의 차이 검증인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유의수준  $p < .05$ ,  $p < .01$ ,  $p < .001$ 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제 4장 실증분석

### 제1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가. 일반적 사항

본 연구의 전체표본 188명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직업, 학력 그리고 소득과 결혼상태 주거형태에 따라서 조사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50.0%로 남녀가 같은 비율을 나타냈고 연령에 따라서는 40-49세 미만이 37.8%로 가장 많았고, 30-39세 미만이 37.2%, 50-59세 미만이 25.0%순으로 연령비율이 나타났다. 직업에 따라서는 회사원이 43.1%로 가장 높은비율을 나타냈고 전문직과 자영업자가 각각 16.5%, 판매, 서비스직이 15.4%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에 따라서는 대졸과 고졸이 각각 44.7%, 44.1%로 대부분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의 월평균 소득에 있어서 150-300만 원미만이 36.2%, 300-500만 원미만이 33.5%, 150만 원미만이 21.3%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에 따라서는 기혼이 92.0%로 대다수가 결혼을 한 상태로 나타났으며 주거형태의 경우 아파트가 77.1%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16.5%로 나타났다.

<표4-1> 일반적 사항

	구분	빈도	%
성별	남성	94	50.0
	여성	94	50.0
연령	30-39세미만	70	37.2
	40-49세미만	71	37.8
	50-59세미만	47	25.0
직업	회사원	81	43.1
	전문직	31	16.5
	자영업자	31	16.5
	무직 및 주부	12	6.4
	판매, 서비스직	29	15.4
	기타	4	2.1
최종학력	중졸	8	4.3
	고졸	83	44.1
	대졸	84	44.7
	대졸이상	13	6.9
소득	150만 원미만	40	21.3
	150-300만 원미만	68	36.2
	300-500만 원미만	63	33.5
	500만 원이상	17	9.0
결혼여부	미혼	8	4.3
	기혼	173	92.0
	사별 또는 이혼	7	3.7
주거형태	단독주택	31	16.5
	연립주택	7	3.7
	아파트	145	77.1
	전원주택	3	1.6
	기타	2	1.1
	합계	188	100.0

나.

#### 나. 자녀수

일반적 특성에서 전체 대상자(N=188) 가운데 기혼자나 사별 또는 이혼에 해당되는 대상자(N=180)에게 현재 자녀가 몇 명인지에 대해서 조사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녀 가운데 아들이 1명 있는 경우가 52.2%로 과반수를 나타냈고 2명인 경우가 24.4% 아들이 없는 경우가 22.2%로 나타났다.

자녀 가운데 딸에 대해서 보면 1명이 있는 경우가 45.6%로 가장 많았고 없는 경우가 31.7%로 나타났다.

<표4-2> 자녀의 수

구분		빈도	%
아들	1명	94	52.2
	2명	44	24.4
	3명	2	1.1
	없음	40	22.2
딸	1명	82	45.6
	2명	32	17.8
	3명	9	5.0
	없음	57	31.7
합계		180	100.0

\*기혼자만 해당, 미혼은 제외

## 제2절 중 · 장년층의 노후생활에 관한 내용

### 가. 노후 생활비 물가

조사 대상자들이 노후생활비를 현재물가를 기준으로 1인당 월 얼마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하여 위 <표4-3>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전체 대상자 가운데 150~250만 원미만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응답 전체 39.4%로 가장 많았고 50~150만 원미만이라는 경우가 36.2%로 대부분 두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별에 따라서 보면 각 집단이 서로 거의 같은 결과를 나타내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고 연령별로는 30대의 경우에는 50~150만 원으로 계획한다는 응답이 52.9%로 가장 많았고 40대의 경우에는 150~250만 원미만이라는 응답

자가 50.7%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50대의 경우에는 150~250만 원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8.3%로 나타나 연령별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p<.001$ ).

직업별로는 회사원과 무직 또는 주부의 경우에는 50~150만 원미만으로 계획한다는 대상자가 각각 45.7%, 58.3%로 나타났고 전문직, 자영업자, 판매, 서비스직 기타의 경우에는 150~250만 원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직업 간에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p<.01$ ) 학력에 따라서는 중졸집단과 대졸 이상 집단은 50~15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경우가 각각 50.0%, 46.2%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고졸의 경우 50~150만 원미만과 150~250만 원미만이 각각 41.0%로 나타났다. 또 대졸의 경우에는 150~250만 원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4.0%로 가장 많이 학력에 따른 집단 간에 유의한 수준의비도 많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p<.001$ ).

결혼 상태에 따라서 구분한 집단에서는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주거형태에 따라서는 단독주택이 50~150만 원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8.1%로 나타나 다른 집단의 경우에는 150~250만 원미만으로 예상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 단독주택과 다른 집단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p<.05$ ).



<표4-3>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현재물가 기준 계획 중인 노후 생활비

		50만 원미만	50만원 - 150만 원미만	150만원 - 250만 원미만	250만원 - 350만 원미만	350만 원이상	전체	$\chi^2(p)$
성별	남성	6	32	37	12	7	94	.703 (.951)
		6.4%	34.0%	39.4%	12.8%	7.4%	100.0%	
	여성	5	36	37	11	5	94	
		5.3%	38.3%	39.4%	11.7%	5.3%	100.0%	
나이	30-39세 미만	3	37	20	7	3	70	27.899* ** (.000)
		4.3%	52.9%	28.6%	10.0%	4.3%	100.0%	
	40-49세 미만	1	16	36	10	8	71	
		1.4%	22.5%	50.7%	14.1%	11.3%	100.0%	
	50-59세 미만	7	15	18	6	1	47	
		14.9%	31.9%	38.3%	12.8%	2.1%	100.0%	
직업	회사원	1	37	29	10	4	81	43.424* * (.002)
		1.2%	45.7%	35.8%	12.3%	4.9%	100.0%	
	전문직	5	7	11	2	6	31	
		16.1%	22.6%	35.5%	6.5%	19.4%	100.0%	
	자영업자	5	8	12	4	2	31	
		16.1%	25.8%	38.7%	12.9%	6.5%	100.0%	
	무직 및주부	0	7	5	0	0	12	
		.0%	58.3%	41.7%	.0%	.0%	100.0%	
	판매, 서비스직	0	8	14	7	0	29	
		.0%	27.6%	48.3%	24.1%	.0%	100.0%	
기타	0	1	3	0	0	4		
	.0%	25.0%	75.0%	.0%	.0%	100.0%		
최종 학력	중졸	3	4	1	0	0	8	32.562* ** (.001)
		37.5%	50.0%	12.5%	.0%	.0%	100.0%	
	고졸	6	34	34	5	4	83	
		7.2%	41.0%	41.0%	6.0%	4.8%	100.0%	
	대졸	2	24	37	15	6	84	
		2.4%	28.6%	44.0%	17.9%	7.1%	100.0%	
	대졸이상	0	6	2	3	2	13	
		.0%	46.2%	15.4%	23.1%	15.4%	100.0%	

소득	150만 원미만	2	22	12	3	1	40	30.966** (.002)
		5.0%	55.0%	30.0%	7.5%	2.5%	100.0%	
	150-300만 원미만	7	28	25	4	4	68	
		10.3%	41.2%	36.8%	5.9%	5.9%	100.0%	
	300-500만 원미만	2	15	30	13	3	63	
		3.2%	23.8%	47.6%	20.6%	4.8%	100.0%	
	500만 원이상	0	3	7	3	4	17	6.627 (.577)
		.0%	17.6%	41.2%	17.6%	23.5%	100.0%	
결혼 여부	미혼	0	5	3	0	0	8	
		.0%	62.5%	37.5%	.0%	.0%	100.0%	
	기혼	10	61	67	23	12	173	
		5.8%	35.3%	38.7%	13.3%	6.9%	100.0%	
사별 또는이혼	1	2	4	0	0	7		
	14.3%	28.6%	57.1%	.0%	.0%	100.0%		
주거 형태	단독주택	2	18	5	3	3	31	26.673* (.045)
		6.5%	58.1%	16.1%	9.7%	9.7%	100.0%	
	연립주택	2	1	4	0	0	7	
		28.6%	14.3%	57.1%	.0%	.0%	100.0%	
	아파트	7	49	60	20	9	145	
		4.8%	33.8%	41.4%	13.8%	6.2%	100.0%	
	전원주택	0	0	3	0	0	3	
		.0%	.0%	100.0%	.0%	.0%	100.0%	
기타	0	0	2	0	0	2		
	.0%	.0%	100.0%	.0%	.0%	100.0%		
전체		11	68	74	23	12	188	
		5.9%	36.2%	39.4%	12.2%	6.4%	100.0%	

\*p<.05, \*\*p<.01, \*\*\*p<.001

#### 나. 노후 염려 요인

<표4-4>에서 보는바와 같이 대상자들이 노후에 가장 염려하고 있는 사항이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 전체 대상자 가운데 경제적문제가 49.5%, 건강문제가 45.7%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아 대다수가 경제와 건강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먼저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는 각 집단 간에 거의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 동질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났고 직업별로는 자영업자는 건강문제가 58.1%, 판매, 서비스직은 51.7%로 타 직업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회사원은 경제적 문제가 55.6%로 타 직업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 < .01$ ).

최종학력에 따라서는 중졸인 집단과 대졸이상인 집단의 경우에는 건강문제가 각각 47.9%와 5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졸과 대졸집단은 경제적문제가 각각 55.4%와 48.8%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지만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고 월소득별로는 150만 원미만은 건강문제와 경제적문제가 약 92%, 150-300만원 미만은 약 97%, 300-500만 원미만은 약 93%, 500만 원이상은 100.0%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결혼 상태와 주거형태에 따라서도 마찬가지로 각 집단 간에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표4-4>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염려 요인

		건강 문제	부부 사별	경제적 문제	외로움과 무료함	주거문제	전체	$\chi^2(p)$
성별	남성	41	2	51	0	0	94	5.257 (.262)
		43.6%	2.1%	54.3%	.0%	.0%	100.0%	
	여성	45	3	42	3	1	94	
		47.9%	3.2%	44.7%	3.2%	1.1%	100.0%	
나이	30-39세 미만	33	2	34	1	0	70	6.464 (.595)
		47.1%	2.9%	48.6%	1.4%	.0%	100.0%	
	40-49세 미만	27	3	39	1	1	71	
		38.0%	4.2%	54.9%	1.4%	1.4%	100.0%	
	50-59세 미만	26	0	20	1	0	47	
		55.3%	.0%	42.6%	2.1%	.0%	100.0%	
직업	회사원	36	0	45	0	0	81	43.622* * (.002)
		44.4%	.0%	55.6%	.0%	.0%	100.0%	
	전문직	13	3	13	2	0	31	
		41.9%	9.7%	41.9%	6.5%	.0%	100.0%	
	자영업자	18	2	11	0	0	31	
		58.1%	6.5%	35.5%	.0%	.0%	100.0%	
	무직 및주부	4	0	6	1	1	12	
		33.3%	.0%	50.0%	8.3%	8.3%	100.0%	
	판매, 서비스직	15	0	14	0	0	29	
		51.7%	.0%	48.3%	.0%	.0%	100.0%	
기타	0	0	4	0	0	4		
	.0%	.0%	100.0%	.0%	.0%	100.0%		
최종 학력	중졸	7	0	1	0	0	8	12.823 (.382)
		87.5%	.0%	12.5%	.0%	.0%	100.0%	
	고졸	32	3	46	1	1	83	
		38.6%	3.6%	55.4%	1.2%	1.2%	100.0%	
	대졸	40	2	41	1	0	84	
		47.6%	2.4%	48.8%	1.2%	.0%	100.0%	
대졸이상	7	0	5	1	0	13		
		53.8%	.0%	38.5%	7.7%	.0%	100.0%	

소득	150만 원미만	14	1	23	1	1	40	11.308 (.503)
		35.0%	2.5%	57.5%	2.5%	2.5%	100.0%	
	150-300만 원미만	32	1	34	1	0	68	
		47.1%	1.5%	50.0%	1.5%	.0%	100.0%	
	300-500만 원미만	28	3	31	1	0	63	
		44.4%	4.8%	49.2%	1.6%	.0%	100.0%	
500만 원이상		12	0	5	0	0	17	
		70.6%	.0%	29.4%	.0%	.0%	100.0%	
결혼 여부	미혼	3	0	5	0	0	8	1.309 (.995)
		37.5%	.0%	62.5%	.0%	.0%	100.0%	
	기혼	80	5	84	3	1	173	
		46.2%	2.9%	48.6%	1.7%	.6%	100.0%	
사별 또는이혼	3	0	4	0	0	7		
	42.9%	.0%	57.1%	.0%	.0%	100.0%		
주거 형태	단독주택	19	1	10	1	0	31	17.732 (.340)
		61.3%	3.2%	32.3%	3.2%	.0%	100.0%	
	연립주택	3	0	3	1	0	7	
		42.9%	.0%	42.9%	14.3%	.0%	100.0%	
	아파트	64	4	75	1	1	145	
		44.1%	2.8%	51.7%	.7%	.7%	100.0%	
전원주택	0	0	3	0	0	3		
	.0%	.0%	100.0%	.0%	.0%	100.0%		
기타	0	0	2	0	0	2		
	.0%	.0%	100.0%	.0%	.0%	100.0%		
전체		86	5	93	3	1	188	
		45.7%	2.7%	49.5%	1.6%	.5%	100.0%	

\*\*p<.01

#### 다. 노후 대책

조사 대상자에게 앞으로 노후대책으로 어떤 방법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저축이 30.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이 각각 28.5%, 20.3%로 나타나 대체로 노후대책으로 저축이나 연금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5> 노후대책

	빈도	퍼센트
저축	103	30.3
국민연금	97	28.5
사적연금	69	20.3
자녀의 도움	3	0.9
퇴직금	29	8.5
기타	39	11.5
합계	340	100.0

\*복수응답

#### 라. 월 저축액

노후를 대비하여 현재 월 평균 어느 정도 저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반적 특성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 <표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월 저축 금액에 대해 살펴보면 30-60만 원미만이 37.2%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30만 원미만 33.5%, 60-100만 원미만 10.6%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는 30-60만 원미만이 43.6%로 여자의 30.9%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여자는 60-100만 원미만이 17.0%로 남자의 4.3%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p<.05$ ) 연령에 있어서 30대집단과 50대 집단의 경우 30~60만 원을 저축하고 있다는 응답이 각각 37.1%와 44.7%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40대 집단에서는 30만 원미만과 30~60만 원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32.4%로 나타나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p<.05$ ).

최종학력에 따라서는 중졸은 30만 원미만과 30-60만 원미만이 약 62%, 고졸은 약 70%, 대졸은 약 70%, 대졸 이상은 약 69%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직업별로 볼 때도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소득에 따라서는 150만 원미만의 집단은 30만 원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7.5%로 가장 많았고 150~300만 원, 300~500만 원미만의 집단은 30~60만 원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48.5%와 41.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 500만 원이상의 집단은 200만 원이상 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5.3%로 가장 높

게 나타나 소득과 계획 중인 노후대비 저축금액이 비례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p < .001$ ).

결혼여부에 따라서는 미혼은 30만 원미만과 30-60만 원미만이 약 75%, 기혼은 약 69%, 사별 또는 이혼은 100.0%로 나타나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고 주거형태에도 마찬가지로 집단 간에 유의한수준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4-6>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대비 월 저축 금액

		30만 원미만	30만원 -60만 원미만	60만원 -100만 원미만	100만 원-150 만 원미만	150만 원-200 만 원미만	200만 원 이상	전체	$\chi^2(p)$
성별	남성	32	41	4	6	7	4	94	11.873* (.037)
		34.0%	43.6%	4.3%	6.4%	7.4%	4.3%	100.0%	
	여성	31	29	16	9	3	6	94	
		33.0%	30.9%	17.0%	9.6%	3.2%	6.4%	100.0%	
나이	30-39세 미만	25	26	7	9	2	1	70	14.951* (.034)
		35.7%	37.1%	10.0%	12.9%	2.9%	1.4%	100.0%	
	40-49세 미만	23	23	9	5	7	4	71	
		32.4%	32.4%	12.7%	7.0%	9.9%	5.6%	100.0%	
	50-59세 미만	15	21	4	1	1	5	47	
		31.9%	44.7%	8.5%	2.1%	2.1%	10.6%	100.0%	
직업	회사원	30	29	8	8	5	1	81	29.657 (.237)
		37.0%	35.8%	9.9%	9.9%	6.2%	1.2%	100.0%	
	전문직	8	16	3	0	2	2	31	
		25.8%	51.6%	9.7%	.0%	6.5%	6.5%	100.0%	
	자영업자	11	11	1	2	1	5	31	
		35.5%	35.5%	3.2%	6.5%	3.2%	16.1%	100.0%	
	무직 및주부	4	5	3	0	0	0	12	
		33.3%	41.7%	25.0%	.0%	.0%	.0%	100.0%	
	판매, 서비스직	8	7	5	5	2	2	29	
		27.6%	24.1%	17.2%	17.2%	6.9%	6.9%	100.0%	
기타	2	2	0	0	0	0	4		
	50.0%	50.0%	.0%	.0%	.0%	.0%	100.0%		
최종 학력	중졸	1	4	3	0	0	0	8	16.619 (.342)
		12.5%	50.0%	37.5%	.0%	.0%	.0%	100.0%	
	고졸	31	28	9	8	3	4	83	
		37.3%	33.7%	10.8%	9.6%	3.6%	4.8%	100.0%	
	대졸	25	35	7	7	6	4	84	
		29.8%	41.7%	8.3%	8.3%	7.1%	4.8%	100.0%	
	대졸이상	6	3	1	0	1	2	13	
		46.2%	23.1%	7.7%	.0%	7.7%	15.4%	100.0%	



소득	150만 원미만	19 47.5%	10 25.0%	7 17.5%	4 10.0%	0 .0%	0 .0%	40 100.0%	63.817* ** (.000)		
	150-300 만원미만	22 32.4%	33 48.5%	7 10.3%	4 5.9%	2 2.9%	0 .0%	68 100.0%			
	300-500 만원미만	20 31.7%	26 41.3%	4 6.3%	3 4.8%	6 9.5%	4 6.3%	63 100.0%			
	500만 원이상	2 11.8%	1 5.9%	2 11.8%	4 23.5%	2 11.8%	6 35.3%	17 100.0%			
	결혼 여부	미혼	4 50.0%	2 25.0%	0 .0%	2 25.0%	0 .0%	0 .0%		8 100.0%	15.162 (.126)
			53 30.6%	67 38.7%	20 11.6%	13 7.5%	10 5.8%	10 5.8%		173 100.0%	
		사별 또는이혼	6 85.7%	1 14.3%	0 .0%	0 .0%	0 .0%	0 .0%		7 100.0%	
			주거 형태	단독주택	10 32.3%	7 22.6%	7 22.6%	4 12.9%		0 .0%	
연립주택	6 85.7%	0 .0%			1 14.3%	0 .0%	0 .0%	0 .0%	7 100.0%		
아파트	43 29.7%	62 42.8%		12 8.3%	11 7.6%	10 6.9%	7 4.8%	145 100.0%			
	전원주택	3 100.0%		0 .0%	0 .0%	0 .0%	0 .0%	0 .0%	3 100.0%		
기타	1 50.0%	1 50.0%		0 .0%	0 .0%	0 .0%	0 .0%	2 100.0%			
	전체	63 33.5%		70 37.2%	20 10.6%	15 8.0%	10 5.3%	10 5.3%	188 100.0%		

\*p<.05, \*\*\*p<.001

#### 마. 노후부양 책임

대상자에게 노후부양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지 특성에 따라서 살펴보면 <표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인 스스로가 75.5%, 국가 및 사회가 20.2%로 나타나 대부분 본인과 국가의 책임이라는 경향을 나타냈다.

성별에 따라서 보면 여성의 경우 본인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89.4%로 대다수가 응답한데 비해 남성의 경우에는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33.0%로 나타나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5) 연령별로는 30-39세 미만

은 본인 스스로가 80.0%, 40-49세 미만은 73.2%, 50-59세 미만은 72.3%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직업에 따라서는 전문직은 본인 스스로가 90.3%, 판매, 서비스직은 96.6%로 타 직업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회사원은 국가 및 사회가 37.0%로 타 직업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

최종학력에 따라서는 중졸은 본인 스스로가 100.0%, 고졸은 72.3%, 대졸은 77.4%, 대졸 이상은 69.2%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소득에 따라서는 150만 원미만은 본인 스스로가 82.5%, 150-300만 원미만은 69.1%, 300-500만 원미만은 71.4%, 500만 원이상은 100.0%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결혼여부에 따라서는 미혼은 국가 및 사회가 37.5%로 타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기혼은 본인 스스로가 76.9%로 타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 < .05$ ).

주거형태에 따라서는 단독주택은 본인스스로가 77.4%, 연립주택은 85.7%, 아파트는 75.9%로 타 주거형태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

<표4-7>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부양 책임

		본인스스로	국가 및 사회	자녀	기타	전체	$\chi^2(p)$
성별	남성	58	31	1	4	94	21.061*** (.000)
		61.7%	33.0%	1.1%	4.3%	100.0%	
	여성	84	7	0	3	94	
		89.4%	7.4%	.0%	3.2%	100.0%	
나이	30-39세미만	56	12	0	2	70	3.678 (.720)
		80.0%	17.1%	.0%	2.9%	100.0%	
	40-49세미만	52	16	1	2	71	
		73.2%	22.5%	1.4%	2.8%	100.0%	
	50-59세미만	34	10	0	3	47	
		72.3%	21.3%	.0%	6.4%	100.0%	
직업	회사원	48	30	1	2	81	44.568*** (.000)
		59.3%	37.0%	1.2%	2.5%	100.0%	
	전문직	28	3	0	0	31	
		90.3%	9.7%	.0%	.0%	100.0%	
	자영업자	25	1	0	5	31	
		80.6%	3.2%	.0%	16.1%	100.0%	
	무직 및 주부	10	2	0	0	12	
		83.3%	16.7%	.0%	.0%	100.0%	
	판매, 서비스직	28	1	0	0	29	
		96.6%	3.4%	.0%	.0%	100.0%	
기타	3	1	0	0	4		
	75.0%	25.0%	.0%	.0%	100.0%		
최종학력	중졸	8	0	0	0	8	5.470 (.792)
		100.0%	.0%	.0%	.0%	100.0%	
	고졸	60	20	0	3	83	
		72.3%	24.1%	.0%	3.6%	100.0%	
	대졸	65	15	1	3	84	
		77.4%	17.9%	1.2%	3.6%	100.0%	
	대졸이상	9	3	0	1	13	
		69.2%	23.1%	.0%	7.7%	100.0%	

소득	150만 원미만	33	5	0	2	40	11.316 (.255)
		82.5%	12.5%	.0%	5.0%	100.0%	
	150-300만 원미만	47	18	1	2	68	
		69.1%	26.5%	1.5%	2.9%	100.0%	
	300-500만 원미만	45	15	0	3	63	
		71.4%	23.8%	.0%	4.8%	100.0%	
500만 원이상	17	0	0	0	17		
		100.0%	.0%	.0%	.0%		100.0%
결혼여부	미혼	5	3	0	0	8	14.181* (.028)
		62.5%	37.5%	.0%	.0%	100.0%	
	기혼	133	34	1	5	173	
		76.9%	19.7%	.6%	2.9%	100.0%	
사별 또는이혼	4	1	0	2	7		
		57.1%	14.3%	.0%	28.6%		100.0%
주거형태	단독주택	24	5	0	2	31	37.191*** (.000)
		77.4%	16.1%	.0%	6.5%	100.0%	
	연립주택	6	1	0	0	7	
		85.7%	14.3%	.0%	.0%	100.0%	
	아파트	110	31	1	3	145	
		75.9%	21.4%	.7%	2.1%	100.0%	
	전원주택	1	0	0	2	3	
		33.3%	.0%	.0%	66.7%	100.0%	
기타	1	1	0	0	2		
		50.0%	50.0%	.0%	.0%		100.0%
전체	142	38	1	7	188		
		75.5%	20.2%	.5%	3.7%		100.0%

\*p<.05, \*\*\*p<.001

#### 바. 자녀와의 동거

<표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후에 자녀와의 동거에 대한 의견이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전체 대상자 가운데 동거하지 않겠다고 61.2%로 과반수가 넘는 비율을 보여 노후에 자녀와의 동거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우 동거하지 않겠다고 70.2%로 대다수를 나타내는데 비해 남성의 경우는 동거하지 않겠다고 52.1%, 자녀가 원하

면 동거하겠다는 응답이 29.8%로 자녀가 원하면 동거하겠다는 응답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동거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반대로 연령이 높을수록 처음에 동거하다가 복지시설이나 유료시설로 입주하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 $p < .05$ ).

직업별로 보면 전문직과 판매 및 서비스직의 경우에 동거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각각 77.4%, 79.3%로 대다수에 응답하였고, 판매, 회사원은 자녀가 원하면 동거하겠다는 25.9%, 자영업자는 22.6%로 타 직업보다 더 높게 나타나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 $p < .05$ ) 최종학력에 있어서 학력이 중졸집단에서는 건강할 때 독립하고 노환이 있을 때 동거하겠다는 문항과 처음에 동거하다가 복지시설이나 유료시설로 입주하겠다는 문항이 각각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달리 다른 집단에서는 동거하지 않겠다는 응답자가 과반 수 이상을 나타내며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소득에 따라서는 150만 원미만은 동거하지 않겠다는 62.5%, 150-300만 원미만은 60.3%, 300-500만 원미만은 58.7%, 500만 원 이상은 70.6%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고 결혼여부에 따라서는 미혼은 동거하지 않겠다는 62.5%, 기혼은 61.8%, 사별 또는 이혼은 42.9%로 각 집단이 서로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주거형태에 대해서 보면 전원주택의 경우에는 건강할 때 독립하고 노환이 있을 때 동거하겠다는 응답자가 100.0%로 나타났고 다른 집단에서는 과반 수 이상이거나 100.0%의 비율을 나타내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4-8>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자녀와의 동거의견

		동거하지않겠다	자녀가 원하면 동거하겠다	건강할때 독립하고 노환이있을때 동거하겠다	처음에 동거하다가 복지시설이나 유료 시설로 입주하겠다	기타	전체	$\chi^2(p)$
성별	남성	49	28	7	9	1	94	17.692* ** (.001)
		52.1%	29.8%	7.4%	9.6%	1.1%	100.0%	
	여성	66	7	10	7	4	94	
		70.2%	7.4%	10.6%	7.4%	4.3%	100.0%	
나이	30-39세 미만	47	14	4	4	1	70	19.201* (.014)
		67.1%	20.0%	5.7%	5.7%	1.4%	100.0%	
	40-49세 미만	46	13	5	3	4	71	
		64.8%	18.3%	7.0%	4.2%	5.6%	100.0%	
	50-59세 미만	22	8	8	9	0	47	
		46.8%	17.0%	17.0%	19.1%	.0%	100.0%	
직업	회사원	48	21	6	6	0	81	36.884* (.012)
		59.3%	25.9%	7.4%	7.4%	.0%	100.0%	
	전문직	24	3	0	4	0	31	
		77.4%	9.7%	.0%	12.9%	.0%	100.0%	
	자영업자	12	7	6	4	2	31	
		38.7%	22.6%	19.4%	12.9%	6.5%	100.0%	
	무직 및주부	6	2	3	0	1	12	
		50.0%	16.7%	25.0%	.0%	8.3%	100.0%	
	판매, 서비스직	23	1	2	1	2	29	
		79.3%	3.4%	6.9%	3.4%	6.9%	100.0%	
기타	2	1	0	1	0	4		
	50.0%	25.0%	.0%	25.0%	.0%	100.0%		
최종 학력	중졸	2	0	3	3	0	8	26.482* * (.009)
		25.0%	.0%	37.5%	37.5%	.0%	100.0%	
	고졸	56	11	6	7	3	83	
		67.5%	13.3%	7.2%	8.4%	3.6%	100.0%	
	대졸	48	22	6	6	2	84	
		57.1%	26.2%	7.1%	7.1%	2.4%	100.0%	
	대졸이상	9	2	2	0	0	13	
		69.2%	15.4%	15.4%	.0%	.0%	100.0%	

소득	150만 원미만	25	4	6	3	2	40	10.580 (.565)
		62.5%	10.0%	15.0%	7.5%	5.0%	100.0%	
	150-300 만원미만	41	15	7	5	0	68	
		60.3%	22.1%	10.3%	7.4%	.0%	100.0%	
	300-500 만원미만	37	13	3	7	3	63	
		58.7%	20.6%	4.8%	11.1%	4.8%	100.0%	
	500만 원이상	12	3	1	1	0	17	
	70.6%	17.6%	5.9%	5.9%	.0%	100.0%		
결혼 여부	미혼	5	2	0	1	0	8	11.578 (.171)
		62.5%	25.0%	.0%	12.5%	.0%	100.0%	
	기혼	107	32	14	15	5	173	
		61.8%	18.5%	8.1%	8.7%	2.9%	100.0%	
사별 또는이혼	3	1	3	0	0	7		
	42.9%	14.3%	42.9%	.0%	.0%	100.0%		
주거 형태	단독주택	16	10	4	1	0	31	43.621* ** (.000)
		51.6%	32.3%	12.9%	3.2%	.0%	100.0%	
	연립주택	7	0	0	0	0	7	
		100.0%	.0%	.0%	.0%	.0%	100.0%	
	아파트	90	25	10	15	5	145	
		62.1%	17.2%	6.9%	10.3%	3.4%	100.0%	
	전원주택	0	0	3	0	0	3	
.0%		.0%	100.0%	.0%	.0%	100.0%		
기타	2	0	0	0	0	2		
	100.0%	.0%	.0%	.0%	.0%	100.0%		
전체	115	35	17	16	5	188		
	61.2%	18.6%	9.0%	8.5%	2.7%	100.0%		

\*p<.05, \*\*p<.01, \*\*\*p<.001

#### 사. 노후생계 대책방법

<표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노후생계 대책 방법이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 전체대상자 가운데 국민연금 29.5%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저축 28.4%, 기타 14.7% 순으로 나타나 대체로 저축과 연금을 노후대책으로 꼽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는 국민연금이 31.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여자는 저축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나 차이가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30-39세 미만은 저축이 37.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와 달리 40-49세 미만은 국민연금이 31.0%, 50-59세 미만은 3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업에 따라서는 회사원, 기타는 국민연금이 각각 31.4%,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문직, 자영업자, 무직 및 주부, 판매, 서비스직은 저축이 각각 29.8%, 34.7%, 55.0%,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최종학력별로 살펴보면 중졸은 저축이 41.7%, 고졸은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졸은 국민연금이 29.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졸 이상은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이 각각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소득에 따라서는 150만 원미만은 저축이 36.4%, 150-300만 원미만은 29.8%로 높게 나타났고 300-500만 원미만은 저축과 국민연금이 각각 29.4%로 나타났으며 500만 원이상은 국민연금이 34.3%로 가장 높게 나타나 소득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결혼여부에 따라서는 미혼은 저축이 41.7%, 기혼은 30.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한 사별 또는 이혼은 국민연금과 기타가 각각 3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거형태에 따라서는 단독주택은 저축이 40.4%, 연립주택은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파트는 국민연금이 3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원주택은 기타가 100.0%로 나타났다.



<표4-9>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생계 대책방법

		저축	국민연 금	사적연 금	자녀의 도움	퇴직금	기타	합계
성별	남성	53	60	41	2	18	15	189
		28.0	31.7	21.7	1.1	9.5	7.9	100.0
	여성	50	37	28	1	11	24	151
		33.1	24.5	18.5	.7	7.3	15.9	100.0
나이	30-39세 미만	43	26	27		10	9	115
		37.4	22.6	23.5		8.7	7.8	100.0
	40-49세 미만	36	45	32	2	14	16	145
		24.8	31.0	22.1	1.4	9.7	11.0	100.0
	50-59세 미만	24	26	10	1	5	14	80
		30.0	32.5	12.5	1.3	6.3	17.5	100.0
직업	회사원	40	48	35	2	18	10	153
		26.1	31.4	22.9	1.3	11.8	6.5	100.0
	전문직	17	14	10		3	13	57
		29.8	24.6	17.5		5.3	22.8	100.0
	자영업자	17	9	11		2	10	49
		34.7	18.4	22.4		4.1	20.4	100.0
	무직 및주부	11	7				2	20
		55.0	35.0				10.0	100.0
	판매, 서비스직	17	16	12		5	3	53
		32.1	30.2	22.6		9.4	5.7	100.0
	기타	1	3	1	1	1	1	8
		12.5	37.5	12.5	12.5	12.5	12.5	100.0
최종 학력	중졸	5	4				3	11
		41.7	33.3				25.0	100.0
	고졸	46	39	27	2	10	18	142
		32.4	27.5	19.0	1.4	7.0	12.7	100.0
	대졸	45	46	34		17	16	158
		28.5	29.1	21.5		10.8	10.1	100.0
	대졸이상	7	8	8	1	2	2	28
		25.0	28.6	28.6	3.6	7.1	7.1	100.0

소득	150만	20	14	5	1	4	11	55
	원미만	36.4	25.5	9.1	1.8	7.3	20.0	100.0
	150-300	37	34	24	1	12	16	124
	만원미만	29.8	27.4	19.4	.8	9.7	12.9	100.0
	300-500	37	37	31	1	10	10	126
	만원미만	29.4	29.4	24.6	.8	7.9	7.9	100.0
500만	9	12	9		3	2	35	
	원이상	25.7	34.3	25.7		8.6	5.7	100.0
결혼 여부	미혼	5	1	3		1	2	12
		41.7	8.3	25.0		8.3	16.7	100.0
	기혼	96	93	65	3	27	34	318
		30.2	29.2	20.4	.9	8.5	10.7	100.0
사별 또는이혼	2	3	1		1	3	10	
	20.0	30.0	10.0		10.0	30.0	100.0	
주거 형태	단독주택	21	9	13		2	7	52
		40.4	17.3	25.0		3.8	13.5	100.0
	연립주택	6	3	1	1	2	2	15
		40.0	20.0	6.7	6.7	13.3	13.3	100.0
	아파트	75	84	54	2	24	27	266
		28.2	31.6	20.3	.8	9.0	10.2	100.0
전원주택						3	3	
						100.0	100.0	
기타	1	1	1		1		4	
	25.0	25.0	25.0		25.0		100.0	
전체	27	28	12	3	11	14	95	
	28.4	29.5	12.6	3.2	11.6	14.7	100.0	

### 제3절 중·장년층의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인식

#### 가. 노인복지주택 개발보급 필요성

<표4-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복지주택개발보급 필요성에 대해 일반적인 특성별 구분된 집단의 차이를 살펴보면 필요하다는 경향의 응답이 약 85%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대다수가 노인복지주택개발보급의 필요성을 느

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특성에 따라 먼저 성별을 보면 여성의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약91.0%로 대다수가 응답하였고 남성의 경우에는 약 80.0%로 나타나 성별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고( $p < .05$ )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 < .05$ ).

직업에 따라서는 무직 및 주부 집단과 기타집단의 경우가 필요하다는 경향의 응답이 100%로 나타났고 다른 집단에서는 80.0%수준으로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고 최종학력에서도 표본이 적은 중졸집단의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100.0%로 나타난 경우를 제외하고 85%수준으로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이 150만 원미만인 집단의 경우 필요하다는 데에 긍정적인 응답자가 90.0%로 나타났고 150~150만 원미만인 집단은 약 80.0%로 나타났다. 300~500만 원집단과 500만 원이상의 집단의 경우 필요성이 있다는 경향의 응답자가 각각 약 89.0%와 82.0%로 나타나 집단 간에  $p < .05$ 의 범위에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결혼여부에 따라서는 미혼은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약 75%, 기혼은 약 86%, 사별 또는 이혼은 약 85%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주거형태별로 단독주택은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약 77%, 연립주택은 약 57%, 아파트는 약 88%, 전원주택과 기타는 각각 100.0%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4-10>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개발 보급 필요성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필요하다	전체	$\chi^2(p)$
성별	남성	1	1	17	44	31	94	9.726* (.045)
		1.1%	1.1%	18.1%	46.8%	33.0%	100.0%	
	여성	0	1	7	63	23	94	
		.0%	1.1%	7.4%	67.0%	24.5%	100.0%	
나이	30-39세 미만	0	0	11	47	12	70	15.690* (.047)
		.0%	.0%	15.7%	67.1%	17.1%	100.0%	
	40-49세 미만	0	2	7	34	28	71	
		.0%	2.8%	9.9%	47.9%	39.4%	100.0%	
	50-59세 미만	1	0	6	26	14	47	
		2.1%	.0%	12.8%	55.3%	29.8%	100.0%	
직업	회사원	1	2	9	42	27	81	13.652 (.848)
		1.2%	2.5%	11.1%	51.9%	33.3%	100.0%	
	전문직	0	0	7	17	7	31	
		.0%	.0%	22.6%	54.8%	22.6%	100.0%	
	자영업자	0	0	4	16	11	31	
		.0%	.0%	12.9%	51.6%	35.5%	100.0%	
	무직	0	0	0	9	3	12	
		.0%	.0%	.0%	75.0%	25.0%	100.0%	
	판매, 서비스직	0	0	4	20	5	29	
		.0%	.0%	13.8%	69.0%	17.2%	100.0%	
기타	0	0	0	3	1	4		
	.0%	.0%	.0%	75.0%	25.0%	100.0%		
최종 학력	중졸	0	0	0	2	6	8	12.189 (.431)
		.0%	.0%	.0%	25.0%	75.0%	100.0%	
	고졸	0	1	12	51	19	83	
		.0%	1.2%	14.5%	61.4%	22.9%	100.0%	
	대졸	1	1	10	48	24	84	
		1.2%	1.2%	11.9%	57.1%	28.6%	100.0%	
	대졸 이상	0	0	2	6	5	13	
		.0%	.0%	15.4%	46.2%	38.5%	100.0%	

소득	150만원 미만	0	0	4	29	7	40	25.694* (.012)
		.0%	.0%	10.0%	72.5%	17.5%	100.0%	
	150-300만원 미만	0	0	13	35	20	68	
		.0%	.0%	19.1%	51.5%	29.4%	100.0%	
	300-500만원 미만	0	1	6	32	24	63	
		.0%	1.6%	9.5%	50.8%	38.1%	100.0%	
500만원 이상	1	1	1	11	3	17	14.160 (.078)	
		5.9%	5.9%	5.9%	64.7%	17.6%		100.0%
결혼 여부	미혼	0	1	1	5	1	8	18.470 (.297)
			.0%	12.5%	12.5%	62.5%	12.5%	
	기혼	1	1	22	100	49	173	
			.6%	.6%	12.7%	57.8%	28.3%	
사별 또는 이혼	0	0	1	2	4	7	18.470 (.297)	
		.0%	.0%	14.3%	28.6%	57.1%		100.0%
주거 형태	단독주택	0	1	6	18	6	31	18.470 (.297)
			.0%	3.2%	19.4%	58.1%	19.4%	
	연립주택	0	0	3	3	1	7	
			.0%	.0%	42.9%	42.9%	14.3%	
	아파트	1	1	15	85	43	145	
			.7%	.7%	10.3%	58.6%	29.7%	
전원주택	0	0	0	0	3	3		
		.0%	.0%	.0%	.0%	100.0%	100.0%	
기타	0	0	0	1	1	2	18.470 (.297)	
		.0%	.0%	.0%	50.0%	50.0%		100.0%
전체	1	2	24	107	54	188	18.470 (.297)	
		.5%	1.1%	12.8%	56.9%	28.7%		100.0%

\*p<.05

#### 나.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생각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 <표4-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지조건, 시설, 비용 등을 고려한 뒤 결정하겠다는 53.7%로 과반수가 조건을 따져본 후 입주하겠다는 응답을 하였고 경제적 능력만 된다면 무조건 입주 하겠다 24.5%, 지금으로서는 잘 모르겠다. 20.7%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는 지금으로서는 잘 모르겠다가 27.7%로 여자의

13.8%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여자는 입지조건, 시설, 비용 등을 고려한 뒤 결정하겠다는 57.4%로 남자의 50.0%보다 더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5$ ).

연령에 따라서는 30-39세 미만은 입지조건, 시설, 비용 등을 고려한 뒤 결정하겠다는 60.0%, 40-49세 미만은 53.5%, 50-59세 미만은 4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으며 최종학력별로 중졸집단에서는 경제적 능력만 된다면 무조건 입주하겠다는 응답자가 75.0%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고졸과 대졸의 집단에서는 입지 조건, 시설, 비용 등을 고려한 뒤 결정하겠다는 경우가 각각 51.8%, 57.1%로 나타났고 대졸이상의 집단에서는 69.2%로 나타나 학력에 따라서 조건을 따져본 뒤 입주하겠다는 경향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p<.05$ ).

소득에 따라서는 150만 원미만은 입지조건, 시설, 비용 등을 고려한 뒤 결정하겠다는 57.5%, 150-300만 원미만은 42.6%, 300-500만 원미만은 60.3%, 500만 원 이상은 64.7%로 나타나 전 집단이 조건을 고려하겠다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결혼여부에 있어서 미혼과 기혼집단은 입지조건, 시설, 비용 등을 고려한 뒤 결정하겠다는 응답자가 각각 62.5%, 5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사별 또는 이혼에 해당하는 집단은 경제적 능력만 된다면 무조건 입주하겠다는 응답자가 42.9%로 나타나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p<.01$ ).

직업, 주거형태에 따라서는 구분한 집단에서는 경제적 능력만 된다면 무조건 입주하겠다는와 입지조건, 시설, 비용 등을 고려한 뒤 결정하겠다는 대부분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4-1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생각

		경제적 능력만 된다면 무조건 입주 하겠다	입지조건, 시설,비용 등을 고려한뒤 결정 하겠다	지금으로 서는 잘모르겠 다	입주 할 의사가 전혀없다	전 체	$\chi^2(p)$
성별	남성	19	47	26	2	94	8.210* (.042)
		20.2%	50.0%	27.7%	2.1%	100.0%	
	여성	27	54	13	0	94	
		28.7%	57.4%	13.8%	.0%	100.0%	
나이	30-39세미만	11	42	16	1	70	6.587 (.361)
		15.7%	60.0%	22.9%	1.4%	100.0%	
	40-49세미만	20	38	13	0	71	
		28.2%	53.5%	18.3%	.0%	100.0%	
	50-59세미만	15	21	10	1	47	
		31.9%	44.7%	21.3%	2.1%	100.0%	
직업	회사원	16	44	19	2	81	15.859 (.391)
		19.8%	54.3%	23.5%	2.5%	100.0%	
	전문직	7	20	4	0	31	
		22.6%	64.5%	12.9%	.0%	100.0%	
	자영업자	13	12	6	0	31	
		41.9%	38.7%	19.4%	.0%	100.0%	
	무직 및주부	3	9	0	0	12	
25.0%		75.0%	.0%	.0%	100.0%		
판매, 서비스직	6	14	9	0	29		
	20.7%	48.3%	31.0%	.0%	100.0%		
기타	1	2	1	0	4		
	25.0%	50.0%	25.0%	.0%	100.0%		
최종 학력	중졸	6	1	1	0	8	19.234* (.023)
		75.0%	12.5%	12.5%	.0%	100.0%	
	고졸	23	43	17	0	83	
		27.7%	51.8%	20.5%	.0%	100.0%	
	대졸	17	48	17	2	84	
		20.2%	57.1%	20.2%	2.4%	100.0%	
대졸이상	0	9	4	0	13		
	.0%	69.2%	30.8%	.0%	100.0%		

소득	150만 원미만	12	23	5	0	40	14.066 (.120)
		30.0%	57.5%	12.5%	.0%	100.0%	
	150-300만 원미만	21	29	18	0	68	
		30.9%	42.6%	26.5%	.0%	100.0%	
	300-500만 원미만	11	38	13	1	63	
		17.5%	60.3%	20.6%	1.6%	100.0%	
500만 원이상	2	11	3	1	17		
		11.8%	64.7%	17.6%	5.9%		100.0%
결혼 여부	미혼	0	5	3	0	8	17.104** (.009)
		.0%	62.5%	37.5%	.0%	100.0%	
	기혼	43	94	35	1	173	
		24.9%	54.3%	20.2%	.6%	100.0%	
사별 또는이혼	3	2	1	1	7		
	42.9%	28.6%	14.3%	14.3%	100.0%		
주거 형태	단독주택	6	20	5	0	31	14.242 (.286)
		19.4%	64.5%	16.1%	.0%	100.0%	
	연립주택	1	3	3	0	7	
		14.3%	42.9%	42.9%	.0%	100.0%	
	아파트	35	77	31	2	145	
		24.1%	53.1%	21.4%	1.4%	100.0%	
전원주택	3	0	0	0	3		
	100.0%	.0%	.0%	.0%	100.0%		
기타	1	1	0	0	2		
	50.0%	50.0%	.0%	.0%	100.0%		
전체	46	101	39	2	188		
	24.5%	53.7%	20.7%	1.1%	100.0%		

\*p<.05, \*\*p<.01

#### 다. 노인복지주택 입주동기

<표4-12>에서 보는바와 같이 노인복지주택 입주동기에 대해 살펴보면 의료서비스와 노인을 위한 서비스가 56.4%로 과반수가 넘는 비율을 보였고 노인을 위한 시설의 편리성 17.0%,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 10.6%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먼저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은 의료서비스와 노인을 위한 서비스가 62.8%로 여자의 50.0%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여성



은 노인을 위한 시설의 편리성이 20.2%로 남자의 13.8%보다 더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연령에 따라서는 30대의 경우 입주 동기로 의료서비스와 노인을 위한서비스라고 응답한 경우가 48.6%, 40대와 50대가 각각 62.0%와 59.6%로 나타났고 노인을 위한 시설의 편리성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30대가 22.9%로 가장 높았고 40대와 50대가 각각 18.3%, 6.4%로 나타나 집단 간에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직업에 따라서는 표본의 수가 적은 기타집단은 자녀의 부담감소가 50.0%로 가장 많았고 판매 서비스직의 경우에는 의료서비스와 노인을 위한서비스가 48.3%, 노인을 위한 시설의 편리성이 31.0%로 다른 집단에 비해 편리성에 비중이 높았고 다른 집단의 경우 노인을 위한서비스라고 응답한 경우가 60.0%수준으로 나타나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최종학력에 따라서는 의료서비스와 노인을 위한서비스라는 응답에 대해서 중졸집단이 37.5%, 고졸과 대졸, 대졸이상의 집단이 각각 47.0%, 64.3%, 76.9%로 나타나 학력에 따라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p < .05$ ) 소득별로 보면 150만 원미만의 집단의 경우 의료서비스와 노인을 위한서비스라는 응답이 32.5%로 나타났고 150~300만 원미만집단과 300~500만 원집단이 약 60.0%로 나타났으며 500만 원이상의 집단은 76.5%로 나타나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 < .05$ ).

결혼여부에 따라서는 미혼인 집단은 의료서비스와 노인을 위한서비스, 노인을 위한 시설의 편리성이 각각 37.5%로 나타났으며 기혼집단에서는 의료와 노인을 위한 서비스가 59.5%로 과반수가 넘는 응답자가 응답하였다. 사별 및 이혼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자녀의 부담감소가 42.9%로 나타나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

주거형태에 따라서는 연립주택은 의료서비스와 노인을 위한서비스가 57.1%, 아파트는 62.1%로 다른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전원주택은 자녀의 부담 감소가 100.0%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

<표4-1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입주 동기

		노인을 위한 시설의 편리성	의료서비스와 노인을 위한 서비스	경제적인 생활비	자녀의 부담 감소	배우자 없이도 생활 편리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	전체	$\chi^2(p)$
성별	남성	13 13.8%	59 62.8%	6 6.4%	9 9.6%	1 1.1%	6 6.4%	94 100.0%	13.536* (.019)
	여성	19 20.2%	47 50.0%	0 .0%	10 10.6%	4 4.3%	14 14.9%	94 100.0%	
나이	30-39세	16 22.9%	34 48.6%	2 2.9%	5 7.1%	1 1.4%	12 17.1%	70 100.0%	19.294* (.037)
	미만	13 18.3%	44 62.0%	2 2.8%	5 7.0%	1 1.4%	6 8.5%	71 100.0%	
	40-49세	3 6.4%	28 59.6%	2 4.3%	9 19.1%	3 6.4%	2 4.3%	47 100.0%	
	미만	13 18.3%	44 62.0%	2 2.8%	5 7.0%	1 1.4%	6 8.5%	71 100.0%	
직업	회사원	15 18.5%	47 58.0%	3 3.7%	8 9.9%	0 .0%	8 9.9%	81 100.0%	38.994* (.037)
	전문직	4 12.9%	18 58.1%	0 .0%	2 6.5%	1 3.2%	6 19.4%	31 100.0%	
	자영업자	2 6.5%	19 61.3%	1 3.2%	3 9.7%	3 9.7%	3 9.7%	31 100.0%	
	무직	1 8.3%	7 58.3%	0 .0%	4 33.3%	0 .0%	0 .0%	12 100.0%	
	및주부	9 31.0%	14 48.3%	2 6.9%	0 .0%	1 3.4%	3 10.3%	29 100.0%	
	판매, 서비스직	1 25.0%	1 25.0%	0 .0%	2 50.0%	0 .0%	0 .0%	4 100.0%	
	기타	1 25.0%	1 25.0%	0 .0%	2 50.0%	0 .0%	0 .0%	4 100.0%	
	기타	1 7.7%	10 76.9%	0 .0%	2 15.4%	0 .0%	0 .0%	13 100.0%	
최종 학력	중졸	1 12.5%	3 37.5%	1 12.5%	3 37.5%	0 .0%	0 .0%	8 100.0%	25.762* (.041)
	고졸	14 16.9%	39 47.0%	2 2.4%	12 14.5%	3 3.6%	13 15.7%	83 100.0%	
	대졸	16 19.0%	54 64.3%	3 3.6%	2 2.4%	2 2.4%	7 8.3%	84 100.0%	
	대졸이상	1 7.7%	10 76.9%	0 .0%	2 15.4%	0 .0%	0 .0%	13 100.0%	

소득	150만 원미만	11	13	2	7	1	6	40	26.360* (.034)
		27.5%	32.5%	5.0%	17.5%	2.5%	15.0%	100.0%	
	150-300만 원미만	8	42	1	11	1	5	68	
		11.8%	61.8%	1.5%	16.2%	1.5%	7.4%	100.0%	
	300-500만 원미만	10	38	3	1	3	8	63	
		15.9%	60.3%	4.8%	1.6%	4.8%	12.7%	100.0%	
500만 원이상	3	13	0	0	0	1	17		
		17.6%	76.5%	.0%	.0%	.0%	5.9%		100.0%
결혼 여부	미혼	3	3	0	0	1	1	8	41.044* ** (.000)
			37.5%	37.5%	.0%	.0%	12.5%	12.5%	
	기혼	28	103	5	16	2	19	173	
			16.2%	59.5%	2.9%	9.2%	1.2%	11.0%	
사별 또는이혼	1	0	1	3	2	0	7		
		14.3%	.0%	14.3%	42.9%	28.6%	.0%		100.0%
주거 형태	단독주택	6	12	1	3	1	8	31	48.385* ** (.000)
			19.4%	38.7%	3.2%	9.7%	3.2%	25.8%	
	연립주택	1	4	0	1	1	0	7	
			14.3%	57.1%	.0%	14.3%	14.3%	.0%	
	아파트	24	90	5	12	3	11	145	
			16.6%	62.1%	3.4%	8.3%	2.1%	7.6%	
전원주택	0	0	0	3	0	0	3		
		.0%	.0%	.0%	100.0%	.0%	.0%	100.0%	
기타	1	0	0	0	0	1	2		
		50.0%	.0%	.0%	.0%	.0%	50.0%	100.0%	
전체	32	106	6	19	5	20	188		
		17.0%	56.4%	3.2%	10.1%	2.7%	10.6%		100.0%

\*p<.05, \*\*\*p<.001

## 제4절 중 · 장년층의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입주방법

### 가. 노인복지주택 입주 시기

<표4-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복지주택 입주 시기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 대상자 가운데 건강악화로 부양 필요시에 입주 하겠다는 경우가 42.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연령이 많아 고독과 외로움을 느낄 때라는

응답이 36.2%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성별에 대해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이 서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며 동질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났다으며 연령별로는 30-39세 미만은 건강악화로 부양 필요시와 연령이 많아 고독과 외로움 느낄 때가 약 82%, 40-49세 미만은 약 69%, 50-59세 미만은 약 85%로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났지만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직업에 따라서는 무직 및 주부, 회사원, 전문직의 경우에는 건강악화로 부양 필요시가 각각 83.3%, 49.45, 38.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자영업자는 연령이 많아 고독과 외로움 느낄 때가 51.6%, 판매, 서비스직은 51.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p < .01$ ) 최종학력에 따라서는 중졸은 건강악화로 부양 필요시와 연령이 많아 고독과 외로움 느낄 때가 각각 50.0%로 나타났고 고졸과 대졸은 건강악화로 부양이 필요 할 시기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38.6%, 46.4%, 대졸이상은 연령이 많아 고독과 외로움을 느낄 때가 53.8%로 나타나 집단 간에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소득별로는 집단간에 거의 같은 분포를 나타내며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고 결혼여부에 따라서는 미혼은 연령이 많아 고독과 외로움 느낄 때가 50.0%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이와 달리 기혼과 사별 또는 이혼은 자식 출가 이후가 42.9%로 타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 < .01$ ).

주거형태에 따라서는 단독주택은 건강악화로 부양 필요시가 51.6%로 타 형태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아파트는 연령이 많아 고독과 외로움 느낄 때가 39.3%로 타 형태보다 더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 < .001$ ).

<표4-13>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입주 시기

		자식 출가 이후	배우자 사망 이후	건강악화 로 부양 필요시	연령이 많아 고독과 외로움 느낄 때	기타	전체	$\chi^2(p)$
성별	남성	6	14	40	33	1	94	.162 (.997)
		6.4%	14.9%	42.6%	35.1%	1.1%	100.0%	
	여성	5	14	39	35	1	94	
		5.3%	14.9%	41.5%	37.2%	1.1%	100.0%	
나이	30-39세미 만	2	9	37	21	1	70	11.748 (.163)
		2.9%	12.9%	52.9%	30.0%	1.4%	100.0%	
	40-49세미 만	6	15	21	28	1	71	
		8.5%	21.1%	29.6%	39.4%	1.4%	100.0%	
	50-59세미 만	3	4	21	19	0	47	
		6.4%	8.5%	44.7%	40.4%	.0%	100.0%	
직업	회사원	6	13	40	21	1	81	39.574* * (.006)
		7.4%	16.0%	49.4%	25.9%	1.2%	100.0%	
	전문직	0	8	12	11	0	31	
		.0%	25.8%	38.7%	35.5%	.0%	100.0%	
	자영업자	5	4	6	16	0	31	
		16.1%	12.9%	19.4%	51.6%	.0%	100.0%	
	무직 및주부	0	0	10	2	0	12	
		.0%	.0%	83.3%	16.7%	.0%	100.0%	
	판매, 서비스직	0	2	11	15	1	29	
		.0%	6.9%	37.9%	51.7%	3.4%	100.0%	
기타	0	1	0	3	0	4		
	.0%	25.0%	.0%	75.0%	.0%	100.0%		
최종 학력	중졸	0	0	4	4	0	8	8.300 (.761)
		.0%	.0%	50.0%	50.0%	.0%	100.0%	
	고졸	6	14	32	29	2	83	
		7.2%	16.9%	38.6%	34.9%	2.4%	100.0%	
	대졸	4	13	39	28	0	84	
		4.8%	15.5%	46.4%	33.3%	.0%	100.0%	
	대졸이상	1	1	4	7	0	13	
		7.7%	7.7%	30.8%	53.8%	.0%	100.0%	

소득	150만 원미만	4 10.0%	5 12.5%	16 40.0%	14 35.0%	1 2.5%	40 100.0%	6.826 (.869)	
	150-300 만원미만	4 5.9%	10 14.7%	31 45.6%	22 32.4%	1 1.5%	68 100.0%		
	300-500 만원미만	3 4.8%	10 15.9%	27 42.9%	23 36.5%	0 .0%	63 100.0%		
	500만 원이상	0 .0%	3 17.6%	5 29.4%	9 52.9%	0 .0%	17 100.0%		
	미혼	0 .0%	1 12.5%	3 37.5%	4 50.0%	0 .0%	8 100.0%		19.997* * (.010)
	기혼	8 4.6%	27 15.6%	73 42.2%	63 36.4%	2 1.2%	173 100.0%		
	사별또는 이혼	3 42.9%	0 .0%	3 42.9%	1 14.3%	0 .0%	7 100.0%		
단독주택	1 3.2%	6 19.4%	16 51.6%	8 25.8%	0 .0%	31 100.0%	56.151* ** (.000)		
연립주택	1 14.3%	1 14.3%	3 42.9%	2 28.6%	0 .0%	7 100.0%			
아파트	6 4.1%	20 13.8%	60 41.4%	57 39.3%	2 1.4%	145 100.0%			
전원주택	3 100.0%	0 .0%	0 .0%	0 .0%	0 .0%	3 100.0%			
기타	0 .0%	1 50.0%	0 .0%	1 50.0%	0 .0%	2 100.0%			
전체	11 5.9%	28 14.9%	79 42.0%	68 36.2%	2 1.1%	188 100.0%			

\*\*p<.01, \*\*\*p<.001

#### 나.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입주방식

조사대상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노인복지주택 입주방식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 <표4-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대상자 가운데 임대방식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68.1%로 대다수가 임대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살펴보면 먼저 성별의 경우에는 두 집단이 서로 거

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며 비슷하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30-39세 미만은 임대방식이 71.4%, 40-49세 미만은 69.0%, 50-59세 미만은 61.7%로 마찬가지로 집단 간에 거의 유사한 비율이 나타났다.

직업에 따라서는 무직 및 주부, 기타집단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임대방식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41.7%, 50.0%로 다른 집단에서는 70.0%수준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최종학력에 따라서는 중졸인 집단의 경우 기타방식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데 반해 다른 집단에서는 임대방식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약 70.0%수준으로 나타나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소득과 결혼 여부에 따라서는 각 구분된 집단이 모두 60~70%사이의 비율을 나타내며 동질집단으로 나타났고 주거 형태별로 보면 임대 방식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단독주택이 83.9% 연립주택이 57.1%, 아파트와 전원주택이 각각 65.5%와 100.0%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지만 유의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다.

<표4-14>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입주방식으로  
바람직한 것

		분양방식	임대방식	이용권방식	기타	전체	$\chi^2(p)$
성별	남성	8	64	17	5	94	.458 (.928)
		8.5%	68.1%	18.1%	5.3%	100.0%	
	여성	8	64	15	7	94	
		8.5%	68.1%	16.0%	7.4%	100.0%	
나이	30-39세미만	6	50	13	1	70	9.091 (.169)
		8.6%	71.4%	18.6%	1.4%	100.0%	
	40-49세미만	7	49	11	4	71	
		9.9%	69.0%	15.5%	5.6%	100.0%	
	50-59세미만	3	29	8	7	47	
		6.4%	61.7%	17.0%	14.9%	100.0%	
직업	회사원	9	56	15	1	81	18.629 (.231)
		11.1%	69.1%	18.5%	1.2%	100.0%	
	전문직	1	23	4	3	31	
		3.2%	74.2%	12.9%	9.7%	100.0%	
	자영업자	1	22	4	4	31	
		3.2%	71.0%	12.9%	12.9%	100.0%	
	무직및 주부	3	5	3	1	12	
		25.0%	41.7%	25.0%	8.3%	100.0%	
	판매, 서비스직	1	20	5	3	29	
		3.4%	69.0%	17.2%	10.3%	100.0%	
	기타	1	2	1	0	4	
		25.0%	50.0%	25.0%	.0%	100.0%	
최종 학력	중졸	2	2	1	3	8	22.245** (.008)
		25.0%	25.0%	12.5%	37.5%	100.0%	
	고졸	7	59	11	6	83	
		8.4%	71.1%	13.3%	7.2%	100.0%	
	대졸	7	57	18	2	84	
		8.3%	67.9%	21.4%	2.4%	100.0%	
	대졸이상	0	10	2	1	13	
		.0%	76.9%	15.4%	7.7%	100.0%	



소득	150만 원미만	5	27	3	5	40	12.206 (.202)
		12.5%	67.5%	7.5%	12.5%	100.0%	
	150-300만 원미만	7	42	13	6	68	
		10.3%	61.8%	19.1%	8.8%	100.0%	
	300-500만 원 미만	3	47	12	1	63	
		4.8%	74.6%	19.0%	1.6%	100.0%	
500만 원이상	1	12	4	0	17		
	5.9%	70.6%	23.5%	.0%	100.0%		
결혼 여부	미혼	0	6	2	0	8	2.411 (.878)
		.0%	75.0%	25.0%	.0%	100.0%	
	기혼	15	117	29	12	173	
		8.7%	67.6%	16.8%	6.9%	100.0%	
사별또는 이혼	1	5	1	0	7		
	14.3%	71.4%	14.3%	.0%	100.0%		
주거 형태	단독주택	2	26	2	1	31	19.504 (.077)
		6.5%	83.9%	6.5%	3.2%	100.0%	
	연립주택	0	4	2	1	7	
		.0%	57.1%	28.6%	14.3%	100.0%	
	아파트	13	95	28	9	145	
		9.0%	65.5%	19.3%	6.2%	100.0%	
전원주택	0	3	0	0	3		
	.0%	100.0%	.0%	.0%	100.0%		
기타	1	0	0	1	2		
	50.0%	.0%	.0%	50.0%	100.0%		
전체	16	128	32	12	188		
	8.5%	68.1%	17.0%	6.4%	100.0%		

\*\*p<.01

#### 다. 노인복지주택에 입주 시 비용

노인복지주택에 입주시 선택할 비용부담 유형이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여 <표4-15>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전체대상자의 성향을 살펴보면 입주시 전세보증금을 지불하는 형태의 전세 임대형으로는 48.4%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입주시 일시에 입주금을 지불, 종신 이용 권리를 확보하는 형태의 종신행으로는 25.0%, 입주시 일정보증금을 납부하고 월별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형태의 일정보증금 납부 및 월

임대형은 20.7%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는 입주시 전세보증금을 지불하는 형태의 전세임대형은 42.6%, 여자는 54.3%로 나타났으며 연령에 있어서 30-39세 미만은 입주시 전세보증금을 지불하는 형태의 전세임대형이 48.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40-49세 미만과 50-59세 미만도 각각 48.6%, 51.1%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직업별로 보면 입주시 전세보증금을 지불하는 형태에 대해서 회사원이 42.0%, 전문직은 61.3%, 자영업자는 64.5%, 무직 및 주부는 41.7%, 판매, 서비스직은 41.4%로 나타나 각 집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최종학력에 따라서는 중졸은 입주시 전세보증금을 지불하는 형태가 100.0% 나타났고 기타 집단에서는 고졸은 47.0%, 대졸은 45.2%, 대졸 이상은 46.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가정의 월 소득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150만 원미만은 입주시 전세보증금을 지불하는 형태의 전세임대형이 50.0%, 150-300만 원미만은 52.9%, 300-500만 원미만은 41.3%, 500만 원 이상은 52.9%로 나타나 비슷한 경향을 보이며 결혼여부에 따라서 미혼은 입주시 전세보증금을 지불하는 형태가 75.0%, 기혼은 46.2%, 사별 또는 이혼은 71.4%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주거형태에 따라서는 연립주택은 입주시 일시에 입주금을 지불, 종신이용 권리를 확보하는 형태의 종신행은 28.6%, 아파트는 29.0%로 타 형태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단독주택은 입주시 전세보증금을 지불하는 형태가 74.2%, 전원주택은 100.0%로 타 형태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 < .05$ ).

<표4-15>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에 입주 시 선택할 비용 부담 유형

		종신형:입주시일시에입주금을지불,종신이용권리를확보하는형태	전세임대형:입주시전제보증금을지불하는형태	일정보증금납부월임대형:입주시일정보증금을납부,월별사용료납부	분양형:자기소유를위해매입되는형태	전체	$\chi^2(p)$
성별	남성	29 30.9%	40 42.6%	21 22.3%	4 4.3%	94 100.0%	4.953 (.175)
	여성	18 19.1%	51 54.3%	18 19.1%	7 7.4%	94 100.0%	
나이	30-39세미만	17 24.3%	34 48.6%	14 20.0%	5 7.1%	70 100.0%	6.836 (.336)
	40-49세미만	23 32.4%	33 46.5%	11 15.5%	4 5.6%	71 100.0%	
	50-59세미만	7 14.9%	24 51.1%	14 29.8%	2 4.3%	47 100.0%	
직업	회사원	24 29.6%	34 42.0%	18 22.2%	5 6.2%	81 100.0%	14.200 (.510)
	전문직	6 19.4%	19 61.3%	4 12.9%	2 6.5%	31 100.0%	
	자영업자	4 12.9%	20 64.5%	6 19.4%	1 3.2%	31 100.0%	
	무직및 주부	3 25.0%	5 41.7%	3 25.0%	1 8.3%	12 100.0%	
	판매, 서비스직	8 27.6%	12 41.4%	8 27.6%	1 3.4%	29 100.0%	
	기타	2 50.0%	1 25.0%	0 .0%	1 25.0%	4 100.0%	
최종 학력	중졸	0 .0%	8 100.0%	0 .0%	0 .0%	8 100.0%	12.481 (.188)
	고졸	22 26.5%	39 47.0%	17 20.5%	5 6.0%	83 100.0%	
	대졸	23 27.4%	38 45.2%	17 20.2%	6 7.1%	84 100.0%	
	대졸이상	2 15.4%	6 46.2%	5 38.5%	0 .0%	13 100.0%	

소득	150만 원미만	9	20	8	3	40	8.236 (.511)
		22.5%	50.0%	20.0%	7.5%	100.0%	
	150-300만 원미만	19	36	10	3	68	
		27.9%	52.9%	14.7%	4.4%	100.0%	
	300-500만 원미만	18	26	16	3	63	
		28.6%	41.3%	25.4%	4.8%	100.0%	
500만 원이상	1	9	5	2	17	5.764 (.450)	
		5.9%	52.9%	29.4%	11.8%		100.0%
결혼 여부	미혼	0	6	2	0	8	5.764 (.450)
		.0%	75.0%	25.0%	.0%	100.0%	
	기혼	46	80	36	11	173	
		26.6%	46.2%	20.8%	6.4%	100.0%	
사별또는 이혼	1	5	1	0	7	24.903* (.015)	
	14.3%	71.4%	14.3%	.0%	100.0%		
주거 형태	단독주택	3	23	4	1	31	24.903* (.015)
		9.7%	74.2%	12.9%	3.2%	100.0%	
	연립주택	2	4	0	1	7	
		28.6%	57.1%	.0%	14.3%	100.0%	
	아파트	42	60	35	8	145	
		29.0%	41.4%	24.1%	5.5%	100.0%	
	전원주택	0	3	0	0	3	
		.0%	100.0%	.0%	.0%	100.0%	
기타	0	1	0	1	2		
	.0%	50.0%	.0%	50.0%	100.0%		
전체	47	91	39	11	188	25.0%	
	25.0%	48.4%	20.7%	5.9%	100.0%		

\*p<.05

#### 라. 노인복지주택 입주 시 희망 보증금

노인복지주택에 입주 시 1인기준 보증금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희망하는지에 대해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희망 수준에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표4-16>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먼저 전체대상자의 성향을 살펴보면 1000만 원미만이 42.6%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1000-2000만 원미만 27.7%, 2000-3000만 원미만 20.7% 순으로 나타나 대체로 1000만 원미만의 보증금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특성에 따라서보면 먼저 성별의 경우 남자는 1000만 원미만과 1000만원~2000만 원미만이 각각 35.1%, 31.9%로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비해서 여성의 경우 1000만 원미만이 50.0%로 과반수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연령에 따라서는 30-39세 미만은 1000만원 미만이 50.0%, 40-49세 미만은 35.2%, 50-59세 미만은 42.6%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직업에 따라서는 무직 및 주부는 1000만 원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91.7%로 대다수로 나타났고 회사원과 전문직의 경우에도 1000만 원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40.7%, 54.8%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자영업자는 1000~2000만 원미만이 41.9%로 나타났으며 판매, 서비스직의 경우 1000만 원미만과 1000~2000만 원미만이 각각 27.6% 4000~5000만 원미만이 24.1%로 나타나 집단 간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p<.001$ ).

최종학력에 따라서는 중졸자인 집단에서는 1000만 원미만이 75.0%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고졸과 대졸이 각각 44.6%, 40.5%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대졸이상의 대상자는 2000~3000만 원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6.2%로 나타나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p<.05$ ) 소득별로 구분하였을 경우 150만 미만과 150~300만 원미만인 집단은 1000만 원미만을 희망한다는 응답자가 각각 60.0%, 47.1% 300~500만 원미만인 집단은 1000만 원미만과 2000~3000만 원미만이 각각 33.3%로 나타났다. 또 500만 원이상 인 집단에서는 2000~3000만 원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5.3%로 월 소득이 높아 질수록 희망 보증금의 금액도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p<.001$ ).

기타 결혼여부, 주거형태별로는 집단 간에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고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표4-16>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에 입주 시 1인 기준 희망 보증금

		1000만 원 미만	1000만 원~ 2000만 원 미만	2000만 원~ 3000만 원 미만	3000만 원~ 4000만 원 미만	4000만 원~ 5000만 원 미만	전체	$\chi^2(p)$
성별	남성	33	30	23	6	2	94	12.109* (.017)
		35.1%	31.9%	24.5%	6.4%	2.1%	100.0%	
	여성	47	22	16	1	8	94	
		50.0%	23.4%	17.0%	1.1%	8.5%	100.0%	
나이	30-39세 미만	35	17	13	2	3	70	4.855 (.773)
		50.0%	24.3%	18.6%	2.9%	4.3%	100.0%	
	40-49세 미만	25	23	16	2	5	71	
		35.2%	32.4%	22.5%	2.8%	7.0%	100.0%	
	50-59세 미만	20	12	10	3	2	47	
		42.6%	25.5%	21.3%	6.4%	4.3%	100.0%	
직업	회사원	33	25	19	3	1	81	47.792* ** (.000)
		40.7%	30.9%	23.5%	3.7%	1.2%	100.0%	
	전문직	17	5	8	1	0	31	
		54.8%	16.1%	25.8%	3.2%	.0%	100.0%	
	자영업자	9	13	7	1	1	31	
		29.0%	41.9%	22.6%	3.2%	3.2%	100.0%	
	무직및주부	11	0	0	0	1	12	
		91.7%	.0%	.0%	.0%	8.3%	100.0%	
	판매, 서비스직	8	8	4	2	7	29	
		27.6%	27.6%	13.8%	6.9%	24.1%	100.0%	
기타	2	1	1	0	0	4		
	50.0%	25.0%	25.0%	.0%	.0%	100.0%		
최종 학력	중졸	6	2	0	0	0	8	24.548* (.017)
		75.0%	25.0%	.0%	.0%	.0%	100.0%	
	고졸	37	28	15	3	0	83	
		44.6%	33.7%	18.1%	3.6%	.0%	100.0%	
	대졸	34	19	18	3	10	84	
		40.5%	22.6%	21.4%	3.6%	11.9%	100.0%	
	대졸이상	3	3	6	1	0	13	
		23.1%	23.1%	46.2%	7.7%	.0%	100.0%	

소득	150만 원미만	24 60.0%	10 25.0%	3 7.5%	2 5.0%	1 2.5%	40 100.0%	32.976* ** (.001)	
	150-300만 원미만	32 47.1%	23 33.8%	9 13.2%	2 2.9%	2 2.9%	68 100.0%		
	300-500만 원미만	21 33.3%	16 25.4%	21 33.3%	2 3.2%	3 4.8%	63 100.0%		
	500만 원이상	3 17.6%	3 17.6%	6 35.3%	1 5.9%	4 23.5%	17 100.0%		
	미혼	6 75.0%	2 25.0%	0 .0%	0 .0%	0 .0%	8 100.0%		8.027 (.431)
	기혼	72 41.6%	46 26.6%	38 22.0%	7 4.0%	10 5.8%	173 100.0%		
사별또는이혼	2 28.6%	4 57.1%	1 14.3%	0 .0%	0 .0%	7 100.0%			
단독주택	17 54.8%	8 25.8%	5 16.1%	1 3.2%	0 .0%	31 100.0%	19.716 (.233)		
연립주택	6 85.7%	1 14.3%	0 .0%	0 .0%	0 .0%	7 100.0%			
아파트	56 38.6%	40 27.6%	33 22.8%	6 4.1%	10 6.9%	145 100.0%			
전원주택	0 .0%	3 100.0%	0 .0%	0 .0%	0 .0%	3 100.0%			
기타	1 50.0%	0 .0%	1 50.0%	0 .0%	0 .0%	2 100.0%			
전체	80 42.6%	52 27.7%	39 20.7%	7 3.7%	10 5.3%	188 100.0%			

\*p<.05, \*\*\*p<.001

#### 마. 노인복지주택에 입주시 월 이용료

노인복지주택에 입주 하였을 경우 1인을 기준으로 희망하는 월 이용료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표4-17>에서 보는바와 같이 전체대상자 가운데 20만 원미만이 63.3%로 나타나 대부분 20만원 미만을 희망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30-40만 원미만이 22.9%로 나타났다.

일반적특성 가운데 성별의 경우를 먼저 보면 남녀 간 각 집단이 20만 원미만을 희망하는 경우가 약 63.0%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30-39세 미만은 20만 원미만이 68.6%, 40-49세 미만은 67.6%, 50-59세 미만은 48.9%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20만 원미만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응대상자가 회사원은 66.7%, 전문직은 64.5%, 자영업자는 48.4%, 무직 및 주부는 83.3%, 판매, 서비스직은 58.6%로 각 집단에서 모두 20만 원미만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최종학력에 경우에도 20만 원미만을 희망한다는 대상자가 중졸은 20만 원미만이 50.0%, 고졸은 71.1%, 대졸은 59.5%, 대졸 이상은 46.2%로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소득에 따라서는 150만 원미만의 집단을 보면 20만 원미만과 30~40만 원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65.0%와 32.5%로 나타났고 150만원~300만원미만의 집단에서는 67.6%와 25.0%로 나타났다. 300~500만 원 집단에서는 20만 원미만이 58.7%, 30~40만 원이 17.5% 40~50만 원미만이 14.3%로 나타났고 500만 원이상의 경우에는 20만 원미만이 58.8%, 30~40만원미만과 100만원 이상이 11.8%, 50~80만 원미만이 17.6%로 나타나 소득이 높을 수록 희망하는 월 이용료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p < .001$ ).

결혼여부에 따라서는 미혼은 20만 원미만이 50.0%, 기혼은 64.7%, 사별 또는 이혼은 42.9% 대체로 20만 원미만이 비율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며 비슷하게 나타났고 주거형태에 따라서는 기타의 집단을 제외하고 모두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표4-17>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입주 시 1인기준 희망 월 이용료

		20만	30만원~	40만원~	50만원~	100만	전체	X <sup>2</sup> (p)
		원미만	40만 원미만	50만 원미만	80만 원미만	원이상		
성별	남성	60	21	8	4	1	94	.717 (.949)
		63.8%	22.3%	8.5%	4.3%	1.1%	100.0%	
	여성	59	22	6	6	1	94	
		62.8%	23.4%	6.4%	6.4%	1.1%	100.0%	
나이	30-39세미만	48	14	5	3	0	70	11.712 (.165)
		68.6%	20.0%	7.1%	4.3%	.0%	100.0%	
	40-49세미만	48	12	6	3	2	71	
		67.6%	16.9%	8.5%	4.2%	2.8%	100.0%	
	50-59세미만	23	17	3	4	0	47	
		48.9%	36.2%	6.4%	8.5%	.0%	100.0%	
직업	회사원	54	19	7	0	1	81	26.272 (.157)
		66.7%	23.5%	8.6%	.0%	1.2%	100.0%	
	전문직	20	6	1	3	1	31	
		64.5%	19.4%	3.2%	9.7%	3.2%	100.0%	
	자영업자	15	11	2	3	0	31	
		48.4%	35.5%	6.5%	9.7%	.0%	100.0%	
	무직및 주부	10	0	2	0	0	12	
		83.3%	.0%	16.7%	.0%	.0%	100.0%	
	판매, 서비스직	17	7	1	4	0	29	
		58.6%	24.1%	3.4%	13.8%	.0%	100.0%	
	기타	3	0	1	0	0	4	
		75.0%	.0%	25.0%	.0%	.0%	100.0%	
최종 학력	중졸	4	4	0	0	0	8	15.609 (.210)
		50.0%	50.0%	.0%	.0%	.0%	100.0%	
	고졸	59	19	3	2	0	83	
		71.1%	22.9%	3.6%	2.4%	.0%	100.0%	
	대졸	50	16	9	7	2	84	
		59.5%	19.0%	10.7%	8.3%	2.4%	100.0%	
	대졸이상	6	4	2	1	0	13	
		46.2%	30.8%	15.4%	7.7%	.0%	100.0%	

소득	150만 원미만	26	13	1	0	0	40	41.813* ** (.000)
		65.0%	32.5%	2.5%	.0%	.0%	100.0%	
	150-300만 원미만	46	17	4	1	0	68	
		67.6%	25.0%	5.9%	1.5%	.0%	100.0%	
	300-500만 원미만	37	11	9	6	0	63	
		58.7%	17.5%	14.3%	9.5%	.0%	100.0%	
500만 원이상	10	2	0	3	2	17		
	58.8%	11.8%	.0%	17.6%	11.8%	100.0%		
결혼 여부	미혼	4	3	1	0	0	8	7.244 (.511)
		50.0%	37.5%	12.5%	.0%	.0%	100.0%	
	기혼	112	36	13	10	2	173	
		64.7%	20.8%	7.5%	5.8%	1.2%	100.0%	
사별 또는 이혼	3	4	0	0	0	7		
	42.9%	57.1%	.0%	.0%	.0%	100.0%		
주거 형태	단독주택	18	7	4	2	0	31	19.634 (.237)
		58.1%	22.6%	12.9%	6.5%	.0%	100.0%	
	연립주택	4	2	1	0	0	7	
		57.1%	28.6%	14.3%	.0%	.0%	100.0%	
	아파트	96	31	8	8	2	145	
		66.2%	21.4%	5.5%	5.5%	1.4%	100.0%	
	전원주택	0	3	0	0	0	3	
		.0%	100.0%	.0%	.0%	.0%	100.0%	
기타	1	0	1	0	0	2		
	50.0%	.0%	50.0%	.0%	.0%	100.0%		
전체	119	43	14	10	2	188		
	63.3%	22.9%	7.4%	5.3%	1.1%	100.0%		

\*\*\*p<.001

## 제5절 중·장년층의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주거환경

### 가. 주거 형태

<표4-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후에 거주하길 원하는 형태에 대해서 일반적특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한 결과 전체대상자 가운데 전원주택형이 70.7%, 아파트형이 18.6%로 대부분 전원주택형을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에 따라서 보면 남자는 전원주택형이 74.5%로 여자의 67.0%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여자는 아파트형이 23.4%로 남자의 13.8%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에 전원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p<.05$ ).

연령에 따라서는 30-39세 미만은 전원주택형을 선호하는 대상자의 비율이 64.3%, 40-49세 미만은 74.6%, 50-59세 미만은 74.5%로 나타나 대부분 전원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직업별로 볼 때도 전원주택형을 선호하는 경우가 회사원은 67.9%, 전문직은 71.0%, 자영업자는 83.9%, 무직 및 주부는 66.7%, 판매, 서비스직은 65.5%로 나타나 마찬가지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최종학력에 따라서는 중졸인 집단이 전원주택형을 선호하는 경우가 87.5%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고졸과 대졸의 경우에도 전원주택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69.9%, 75.0%를 보였다. 이와 달리 대졸이상의 경우에는 아파트형과 전원주택형이 각각 38.5%씩 나타나 학력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5$ ).

소득에 따라보면 전원주택 형을 희망하는 응답자가 150만 원미만은 75.0%, 150-300만 원미만은 64.7%, 300-500만 원미만은 77.8%, 500만 원 이상은 58.8%로 집단 간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고 결혼여부별로 볼 때 미혼은 전원주택 형이 50.0%, 기혼은 70.5%, 사별 또는 이혼은 100.0%로 나타나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으며. 주거형태에 따라서는 볼 때도 각 집단이 모두 전원주택 형을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표4-18>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에 거주하길 원하는 형태

		아파트형	연립주택 형	단독주택 형	전원주택 형	전체	$\chi^2(p)$
성별	남성	13	5	6	70	94	9.826* (.020)
		13.8%	5.3%	6.4%	74.5%	100.0%	
	여성	22	9	0	63	94	
		23.4%	9.6%	.0%	67.0%	100.0%	
나이	30-39세미만	14	6	5	45	70	10.183 (.117)
		20.0%	8.6%	7.1%	64.3%	100.0%	
	40-49세미만	10	7	1	53	71	
		14.1%	9.9%	1.4%	74.6%	100.0%	
	50-59세미만	11	1	0	35	47	
		23.4%	2.1%	.0%	74.5%	100.0%	
직업	회사원	11	9	6	55	81	16.302 (.362)
		13.6%	11.1%	7.4%	67.9%	100.0%	
	전문직	8	1	0	22	31	
		25.8%	3.2%	.0%	71.0%	100.0%	
	자영업자	4	1	0	26	31	
		12.9%	3.2%	.0%	83.9%	100.0%	
	무직 및 주부	3	1	0	8	12	
		25.0%	8.3%	.0%	66.7%	100.0%	
	판매, 서비스직	8	2	0	19	29	
		27.6%	6.9%	.0%	65.5%	100.0%	
기타	1	0	0	3	4		
	25.0%	.0%	.0%	75.0%	100.0%		
최종 학력	중졸	0	0	1	7	8	18.080* (.034)
		.0%	.0%	12.5%	87.5%	100.0%	
	고졸	18	6	1	58	83	
		21.7%	7.2%	1.2%	69.9%	100.0%	
	대졸	12	7	2	63	84	
		14.3%	8.3%	2.4%	75.0%	100.0%	
	대졸이상	5	1	2	5	13	
		38.5%	7.7%	15.4%	38.5%	100.0%	

소득	150만 원미만	5	5	0	30	40	11.046 (.273)
		12.5%	12.5%	.0%	75.0%	100.0%	
	150-300만 원미만	15	5	4	44	68	
		22.1%	7.4%	5.9%	64.7%	100.0%	
	300-500만 원미만	9	3	2	49	63	
		14.3%	4.8%	3.2%	77.8%	100.0%	
500만 원이상	6	1	0	10	17		
	35.3%	5.9%	.0%	58.8%	100.0%		
결혼 여부	미혼	2	2	0	4	8	7.245 (.299)
		25.0%	25.0%	.0%	50.0%	100.0%	
	기혼	33	12	6	122	173	
		19.1%	6.9%	3.5%	70.5%	100.0%	
사별또는 이혼	0	0	0	7	7		
	.0%	.0%	.0%	100.0%	100.0%		
주거 형태	단독주택	8	3	0	20	31	8.272 (.764)
		25.8%	9.7%	.0%	64.5%	100.0%	
	연립주택	2	0	1	4	7	
		28.6%	.0%	14.3%	57.1%	100.0%	
	아파트	25	11	5	104	145	
		17.2%	7.6%	3.4%	71.7%	100.0%	
	전원주택	0	0	0	3	3	
		.0%	.0%	.0%	100.0%	100.0%	
기타	0	0	0	2	2		
	.0%	.0%	.0%	100.0%	100.0%		
전체		35	14	6	133	188	
		18.6%	7.4%	3.2%	70.7%	100.0%	

\*p<.05

#### 나. 거주세대 수

<표4-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복지주택의 적당한 거주 세대 수에 대해 살펴보면 30가구 미만이 55.9%, 30-60가구 미만이 33.0%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는 30가구 미만이 46.8%, 여자는 64.9%로 나타났고 연령에 따라서는 30대와 40대가 30가구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54.3%, 53.5%로 나타났고 50대의 경우엔 61.7%로 나타나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p<.05).

직업에 따라서는 적당한 거주 세대 수에 대해서 30가구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회사원은 이 46.9%, 전문직은 67.7%, 자영업자는 58.1%, 무직 및 주부는 58.3%, 판매, 서비스직은 62.1%로 각 집단이 모두 30가구 미만이라고 응답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최종학력별로 보면 중졸집단에서는 30가구 미만이 100.0%로 나타났고 고졸과 대졸인 집단에서는 각각 55.4%, 5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와 달리 대졸 이상의 집단에서는 30~60가구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3.8%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 < .05$ ).

소득에 따라서는 30가구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50만 원미만은 62.5%, 150-300만 원미만은 52.9%, 300-500만 원미만은 52.4%, 500만 원 이상은 64.7%로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고 결혼여부에 따라서는 미혼은 30가구 미만이 62.5%, 기혼은 56.1%, 사별 또는 이혼은 42.9%로 나타났으며 주거형태에 따라서는 주거형태와 상관없이 30가구 미만과 30-60가구 미만이 대부분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4-19>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의 적당한 거주 세대 수

		30가구미 만	30가구 ~ 60가구미 만	60가구 ~ 100가구 미만	100가구 이상	전체	$\chi^2(p)$
성별	남성	44	37	8	5	94	6.646 (.084)
		46.8%	39.4%	8.5%	5.3%	100.0%	
	여성	61	25	6	2	94	
		64.9%	26.6%	6.4%	2.1%	100.0%	
나이	30-39세미만	38	23	8	1	70	13.087* (.042)
		54.3%	32.9%	11.4%	1.4%	100.0%	
	40-49세미만	38	28	4	1	71	
		53.5%	39.4%	5.6%	1.4%	100.0%	
	50-59세미만	29	11	2	5	47	
		61.7%	23.4%	4.3%	10.6%	100.0%	
직업	회사원	38	31	10	2	81	20.440 (.156)
		46.9%	38.3%	12.3%	2.5%	100.0%	
	전문직	21	7	0	3	31	
		67.7%	22.6%	.0%	9.7%	100.0%	
	자영업자	18	12	0	1	31	
		58.1%	38.7%	.0%	3.2%	100.0%	
	무직및주부	7	4	0	1	12	
		58.3%	33.3%	.0%	8.3%	100.0%	
	판매,서비스 직	18	7	4	0	29	
		62.1%	24.1%	13.8%	.0%	100.0%	
기타	3	1	0	0	4		
	75.0%	25.0%	.0%	.0%	100.0%		
최종 학력	중졸	8	0	0	0	8	19.600* (.021)
		100.0%	.0%	.0%	.0%	100.0%	
	고졸	46	31	4	2	83	
		55.4%	37.3%	4.8%	2.4%	100.0%	
	대졸	47	24	10	3	84	
		56.0%	28.6%	11.9%	3.6%	100.0%	
	대졸이상	4	7	0	2	13	
		30.8%	53.8%	.0%	15.4%	100.0%	

소득	150만 원미만	25	14	1	0	40	10.400 (.319)
		62.5%	35.0%	2.5%	.0%	100.0%	
	150-300만 원미만	36	21	8	3	68	
		52.9%	30.9%	11.8%	4.4%	100.0%	
	300-500만 원미만	33	24	4	2	63	
		52.4%	38.1%	6.3%	3.2%	100.0%	
500만 원이상	11	3	1	2	17		
	64.7%	17.6%	5.9%	11.8%	100.0%		
결혼 여부	미혼	5	3	0	0	8	2.196 (.901)
		62.5%	37.5%	.0%	.0%	100.0%	
	기혼	97	56	13	7	173	
		56.1%	32.4%	7.5%	4.0%	100.0%	
사별 또는 이혼	3	3	1	0	7		
	42.9%	42.9%	14.3%	.0%	100.0%		
주거 형태	단독주택	22	7	1	1	31	15.276 (.227)
		71.0%	22.6%	3.2%	3.2%	100.0%	
	연립주택	5	0	1	1	7	
		71.4%	.0%	14.3%	14.3%	100.0%	
	아파트	77	51	12	5	145	
		53.1%	35.2%	8.3%	3.4%	100.0%	
	전원주택	0	3	0	0	3	
		.0%	100.0%	.0%	.0%	100.0%	
기타	1	1	0	0	2		
	50.0%	50.0%	.0%	.0%	100.0%		
전체	105	62	14	7	188		
	55.9%	33.0%	7.4%	3.7%	100.0%		

\*p<.05

#### 다. 노인복지주택의 입지 환경

<표4-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상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노인복지주택의 입지 환경으로 대해 살펴보면 도시근교 형이 55.9%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전원형이 31.4%, 도시형이 12.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특성에 따라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성별의 경우 남성은 도시근교형이 54.3%, 여성은 57.4%로 과반수가 넘는 비율을 나타내며 비슷한 선호도를 나타냈고 연령에 따라서는 도시근교형이 30대의 경우 60.0%, 40대는 52.1%, 50



대는 55.3%로 나타나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직업에 따라서는 회사원은 도시근교형이 60.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다른 집단에서 전문직은 48.4%, 자영업자는 48.4%, 무직 및 주부는 66.7%, 판매, 서비스직은 58.6%로 나타나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최종학력에 중졸집단에서는 도시형과 전원형이 각각 3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고졸과 대졸 이상인 집단에서는 도시근교형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51.8%, 61.9%, 61.5%로 나타났다.

소득에 따라서는 각 집단이 도시근교형에 대해서 55.0%수준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결혼여부와 주거형태에 따라서도 마찬가지로 도시근교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4-20>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의 입지 환경으로 바람직한 것

		도시형:교통편리, 외출외박자유, 쇼핑의료 등편의생활 용이도시	도시근교형: 자녀들과 인접, 왕래 용이, 교통원활, 휴양과 문화적 혜택	전원형: 조용, 공기맑고 산수 뛰어 난곳, 건강관리및 전원 생활, 도시멀리	전체	$\chi^2(p)$
성별	남성	9 9.6%	51 54.3%	34 36.2%	94 100.0%	2.959 (.228)
	여성	15 16.0%	54 57.4%	25 26.6%	94 100.0%	
나이	30-39세 미만	7 10.0%	42 60.0%	21 30.0%	70 100.0%	1.292 (.863)
	40-49세 미만	10 14.1%	37 52.1%	24 33.8%	71 100.0%	
	50-59세 미만	7 14.9%	26 55.3%	14 29.8%	47 100.0%	
직업	회사원	7 8.6%	49 60.5%	25 30.9%	81 100.0%	10.459 (.401)
	전문직	8 25.8%	15 48.4%	8 25.8%	31 100.0%	
	자영업자	5 16.1%	15 48.4%	11 35.5%	31 100.0%	
	무직및주부	0 .0%	8 66.7%	4 33.3%	12 100.0%	
	판매,서비스직	3 10.3%	17 58.6%	9 31.0%	29 100.0%	
	기타	1 25.0%	1 25.0%	2 50.0%	4 100.0%	
최종학력	중졸	3 37.5%	2 25.0%	3 37.5%	8 100.0%	9.841 (.131)
	고졸	10 12.0%	43 51.8%	30 36.1%	83 100.0%	
	대졸	8 9.5%	52 61.9%	24 28.6%	84 100.0%	
	대졸이상	3 23.1%	8 61.5%	2 15.4%	13 100.0%	

소득	150만 원미만	3	23	14	40	3.455 (.750)
		7.5%	57.5%	35.0%	100.0%	
	150-300만 원미만	10	38	20	68	
		14.7%	55.9%	29.4%	100.0%	
	300-500만 원미만	7	35	21	63	
		11.1%	55.6%	33.3%	100.0%	
500만 원이상	4	9	4	17		
	23.5%	52.9%	23.5%	100.0%		
결혼여부	미혼	0	7	1	8	4.642 (.326)
		.0%	87.5%	12.5%	100.0%	
	기혼	23	93	57	173	
		13.3%	53.8%	32.9%	100.0%	
사별또는이혼	1	5	1	7		
	14.3%	71.4%	14.3%	100.0%		
주거형태	단독주택	5	17	9	31	9.276 (.320)
		16.1%	54.8%	29.0%	100.0%	
	연립주택	2	4	1	7	
		28.6%	57.1%	14.3%	100.0%	
	아파트	17	81	47	145	
		11.7%	55.9%	32.4%	100.0%	
전원주택	0	3	0	3		
	.0%	100.0%	.0%	100.0%		
기타	0	0	2	2		
	.0%	.0%	100.0%	100.0%		
전체	24	105	59	188		
	12.8%	55.9%	31.4%	100.0%		

#### 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입주시 우선적 고려사항

조사대상자들이 노인복지주택 입주를 고려할 때 무엇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지에 대해서 조사하여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4-21>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전체대상자 가운데 입주비용을 우선 고려한다는 응답자가 37.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의료서비스 21.3%, 레저 및 생활프로그램의 다양성 16.0% 순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나타났다.

<표4-2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입주를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싶은 것

		입주비용	의료서비스	자식이거주하는지역과의거리	그시설에입주하는노인층의수준	시설이위치하는지리적여건	레저및생활프로그램의다양성	전체	$\chi^2(p)$
성별	남성	32	23	3	5	14	17	94	6.559 (.256)
		34.0%	24.5%	3.2%	5.3%	14.9%	18.1%	100.0%	
	여성	39	17	10	5	10	13	94	
		41.5%	18.1%	10.6%	5.3%	10.6%	13.8%	100.0%	
나이	30-39세미만	29	12	5	5	4	15	70	10.756 (.377)
		41.4%	17.1%	7.1%	7.1%	5.7%	21.4%	100.0%	
	40-49세미만	28	16	4	2	13	8	71	
		39.4%	22.5%	5.6%	2.8%	18.3%	11.3%	100.0%	
50-59세미만	14	12	4	3	7	7	47		
	29.8%	25.5%	8.5%	6.4%	14.9%	14.9%	100.0%		
직업	회사원	32	18	5	2	10	14	81	34.646 (.095)
		39.5%	22.2%	6.2%	2.5%	12.3%	17.3%	100.0%	
	전문직	12	5	3	4	1	6	31	
		38.7%	16.1%	9.7%	12.9%	3.2%	19.4%	100.0%	
	자영업자	12	7	0	1	6	5	31	
		38.7%	22.6%	.0%	3.2%	19.4%	16.1%	100.0%	
	무직및주부	7	0	3	0	2	0	12	
		58.3%	.0%	25.0%	.0%	16.7%	.0%	100.0%	
판매,서비스직	6	10	1	3	5	4	29		
	20.7%	34.5%	3.4%	10.3%	17.2%	13.8%	100.0%		
기타	2	0	1	0	0	1	4		
	50.0%	.0%	25.0%	.0%	.0%	25.0%	100.0%		
최종학력	중졸	1	4	3	0	0	0	8	34.482* * (.003)
		12.5%	50.0%	37.5%	.0%	.0%	.0%	100.0%	
	고졸	36	18	5	1	13	10	83	
		43.4%	21.7%	6.0%	1.2%	15.7%	12.0%	100.0%	
	대졸	32	13	5	7	9	18	84	
		38.1%	15.5%	6.0%	8.3%	10.7%	21.4%	100.0%	
대졸이상	2	5	0	2	2	2	13		
15.4%	38.5%	.0%	15.4%	15.4%	15.4%	100.0%			

소득	150만 원미만	18	9	3	0	3	7	40	17.822 (.272)
		45.0%	22.5%	7.5%	.0%	7.5%	17.5%	100.0%	
	150-300만 원미만	26	12	6	2	10	12	68	
		38.2%	17.6%	8.8%	2.9%	14.7%	17.6%	100.0%	
	300-500만 원미만	24	15	2	5	7	10	63	
		38.1%	23.8%	3.2%	7.9%	11.1%	15.9%	100.0%	
500만 원이상	3	4	2	3	4	1	17		
	17.6%	23.5%	11.8%	17.6%	23.5%	5.9%	100.0%		
결혼 여부	미혼	4	0	0	1	0	3	8	12.825 (.234)
		50.0%	.0%	.0%	12.5%	.0%	37.5%	100.0%	
	기혼	62	40	12	9	24	26	173	
		35.8%	23.1%	6.9%	5.2%	13.9%	15.0%	100.0%	
사별또는 이혼	5	0	1	0	0	1	7		
	71.4%	.0%	14.3%	.0%	.0%	14.3%	100.0%		
주거 형태	단독주택	12	1	6	2	5	5	31	26.425 (.152)
		38.7%	3.2%	19.4%	6.5%	16.1%	16.1%	100.0%	
	연립주택	2	1	1	1	0	2	7	
		28.6%	14.3%	14.3%	14.3%	.0%	28.6%	100.0%	
	아파트	53	38	6	7	19	22	145	
		36.6%	26.2%	4.1%	4.8%	13.1%	15.2%	100.0%	
전원주택	3	0	0	0	0	0	3		
	100.0%	.0%	.0%	.0%	.0%	.0%	100.0%		
기타	1	0	0	0	0	1	2		
	50.0%	.0%	.0%	.0%	.0%	50.0%	100.0%		
전체	71	40	13	10	24	30	188	37.8%	
	21.3%	6.9%	5.3%	12.8%	16.0%	100.0%			

\*\*p<.01

#### 마. 노인복지주택 입주시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싶은 것

노인복지주택의 입주시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입주비용, 의료서비스, 자식이 거주하는 지역과의 거리, 그 시설에 입주하는 노인층의 수준, 시설이 위치하는 지리적 여건, 레저 및 생활 프로그램의 다양성으로 구분하여 우선 순위별로 빈도분석을 한 결과 <표4-22>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대상자들이 1순위로 고려하는 입주고려사항으로 입주비용이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의료서비스와 레저 및 생활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각각 21.3%,

16.0%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로 고려할 사항으로는 의료서비스가 29.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3순위에서는 의료서비스가 21.8%, 시설의 노인층 수준이 20.7%순으로 나타났고, 4순위에서는 지리적 여건이 2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순위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자식이 거주하는 지역과 거리가 21.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6순위로는 레저 및 생활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31.9%로 나타났다. 따라서 입주비용 과 의료서비스가 가장 고려해야할 요소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4-22> 노인복지주택 입주를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싶은 것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입주비용	71	37.8	35	18.6	16	8.5	21	11.2	23	12.2	21	11.2
의료서비스	40	21.3	56	29.8	41	21.8	29	15.4	16	8.5	3	1.6
자식이거주하는 지역과의거리	13	6.9	26	13.8	32	17.0	43	22.9	40	21.3	29	15.4
그시설에입주하는노인층의수준	10	5.3	16	8.5	39	20.7	29	15.4	38	20.2	49	26.1
시설이위치하는지리적여건	24	12.8	35	18.6	36	19.1	41	21.8	37	19.7	9	4.8
레저및생활프로그램의다양성	30	16.0	17	9.0	21	11.2	22	11.7	28	14.9	60	31.9
무응답			3	1.6	3	1.6	3	1.6	6	3.2	17	9.0
합계	188	100.0	188	100.0	188	100.0	188	100.0	188	100.0	188	100.0

## 제6절 노후대비 유무에 따른 노후주거 선호도 차이

### 가. 현재물가기준 노후생활비

노후대비를 준비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현재 물가 기준으로 생각하는 노후 생활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교차분석을 하여 <표4-23>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전체대상자를 보면 150~250만 원미만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자가 39.4%로 가장 많았고 50~150만 원미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36.2%로 나타났다.

노후대비 준비에 따라서 보면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경우에는 50~15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7.6%로 가장 많았고 노후대비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150~250만 원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0.8%로 나타나 노후대비 준비를 하는 집단이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집단에 비해 노후생활비를 더 높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p<.01).

<표4-23> 노후대비 여부에 따른 현재 물가 기준 노후 생활비

		50만 원미만	50만원-1 50만 원미만	150만원- 250만 원미만	250만원- 350만 원미만	350만 원 이상	전체	$\chi^2(p)$
노후 대비 여부	준비안함	6 9.5%	30 47.6%	23 36.5%	3 4.8%	1 1.6%	63 100.0%	13.552** (.009)
	준비함	5 4.0%	38 30.4%	51 40.8%	20 16.0%	11 8.8%	125 100.0%	
전체		11 5.9%	68 36.2%	74 39.4%	23 12.2%	12 6.4%	188 100.0%	

\*\*p<.01

#### 나. 노후염려 요인

노후대비여부에 따라서 노후에 가장 염려되는 사항으로 꼽는 요인이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표4-24>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전체 대상자가운데 경제적 문제가 49.5%로 나타나 노후의 경제문제에 대해서 염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후대비 여부에 따라서는 준비하지 않는 집단과 준비한 집단 모두 경제와 건강문제를 가장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24> 노후대비 여부에 따른 노후염려 요인

		건강문제	부부사별	경제적 문제	외로움과 무료함	주거문제	전체	$\chi^2(p)$
노후 대비 여부	준비안함	28	0	33	1	1	63	4.702 (.319)
		44.4%	.0%	52.4%	1.6%	1.6%	100.0%	
	준비함	58	5	60	2	0	125	
		46.4%	4.0%	48.0%	1.6%	.0%	100.0%	
전체		86	5	93	3	1	188	
		45.7%	2.7%	49.5%	1.6%	.5%	100.0%	

#### 다. 월 저축금액

노후대비여부에 따라서 현재 노후대비 월 저축금액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4-25>에서 보는바와 같이 노후대비 준비를 하지 않는 집단의 경우 월 저축금액이 30만 원미만에 해당하는 경우가 100.0%로 나타났고 노후대비를 준비하는 집단에서는 30~60만 원을 저축하고 있는 경우가 56.0%로 나타나 노후대비를 하는 집단에서는 적어도 30만 원 이상을 저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집단 간에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표4-25> 노후대비 여부에 따른 월 저축 금액

		30만 원 미만	30만 원 -60만 원미만	60만 원 -100만 원미만	100만 원 -150만 원미만	150만 원 -200만 원미만	200만 원 이상	전체	$\chi^2(p)$
노후 대비 여부	준비안함	63	0	0	0	0	0	63	188.000 *** (.000)
		100.0%	.0%	.0%	.0%	.0%	.0%	100.0%	
	준비함	0	70	20	15	10	10	125	
		.0%	56.0%	16.0%	12.0%	8.0%	8.0%	100.0%	
전체		63	70	20	15	10	10	188	
		33.5%	37.2%	10.6%	8.0%	5.3%	5.3%	100.0%	

\*\*\*p<.001



### 라. 노후 부양책임

노후대비 여부에 따라 노후 부양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하여 <표4-26>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전체 대상자 가운데 본인 스스로의 책임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75.5%로 가장 많았으며 노후대비여부에 따른 두 집단의 차이를 살펴보면 준비하지 않는 집단에서는 본인의 책임이라는 경우가 63.5%로 나타났고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이라는 경우가 30.2%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준비하고 있는 집단에서는 본인의 책임이라는 경우가 81.6%로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 노후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노후대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표4-26> 노후대비 여부에 따른 노후부양 책임

		본인스스로	국가 및 사회	자녀	기타	전체	$\chi^2(p)$
노후대비여부	준비안함	40 63.5%	19 30.2%	1 1.6%	3 4.8%	63 100.0%	
	준비함	102 81.6%	19 15.2%	0 .0%	4 3.2%	125 100.0%	
전체		142	38	1	7	188	
		75.5%	20.2%	.5%	3.7%	100.0%	

\*p<.05

### 마. 자녀와의 동거

노후대비여부에 따라서 노후에 자녀와의 동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 <표4-27>에서 보는바와 같이 전체대상자 가운데 동거하지 않겠다는 응답자가 61.2%로 과반수가 넘는 비율이 나타났다. 노후대비여부에 따라서 살펴보면 동거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준비하지 않는 집단이 58.7%, 준비하는 집단이 62.4%로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하였고 노후대비 여부에 따라서는 노후에 자녀와 동거하지 않겠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4-27> 노후대비 여부에 따른 자녀와의 동거 의견

		동거하지 않겠다	자녀가원 하면동거 하겠다	건강할때 독립하고 노환이있 을때동거 하겠다	처음에동 거하다가 복지시설 이나유료 시설로입 주하겠다	기타	전체	$\chi^2(p)$
노후 대비 여부	준비안함	37 58.7%	14 22.2%	7 11.1%	3 4.8%	2 3.2%	63 100.0%	2.861 (.581)
	준비함	78 62.4%	21 16.8%	10 8.0%	13 10.4%	3 2.4%	125 100.0%	
전체		115 61.2%	35 18.6%	17 9.0%	16 8.5%	5 2.7%	188 100.0%	

#### 바. 노인복지주택 개발보급 필요성

현재 노후대비여부에 따라서 노인복지주택을 개발, 보급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의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표4-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후대비여부에 따른 두 집단이 필요하다는 경향으로 응답한 경우가 약 85.0%수준으로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 노후대비여부에 관계없이 개발보급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28> 노후대비 여부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개발 보급 필요성

		전혀필요 하지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필요 하다	전체	$\chi^2(p)$
노후 대비 여부	준비안함	1 1.6%	1 1.6%	8 12.7%	32 50.8%	21 33.3%	63 100.0%	3.553 (.470)
	준비함	0 .0%	1 .8%	16 12.8%	75 60.0%	33 26.4%	125 100.0%	
전체		1 .5%	2 1.1%	24 12.8%	107 56.9%	54 28.7%	188 100.0%	

### 사.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생각

노후대비여부에 따라서 노인복지주택에 대한의견이 차이가 나타나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4-29>에서 보는바와 같이 각 집단이 각 항목에 대해서 모두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 특성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문항에 대해서 두 집단은 동질집단으로 볼 수 있으며 노후대비 여부에 관계없이 입지조건이나 시설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겠다는 경향을 나타냈다.

<표4-29> 노후대비 여부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생각

		경제적 능력만 된다면 무조건 입주 하겠다	입지조건, 시설,비용 등을 고려한뒤 결정 하겠다	지금으로 서는 잘모르겠 다	입주 할 의사가 전혀없다	전체	$\chi^2(p)$
노후대 비여부	준비안함	14 22.2%	33 52.4%	15 23.8%	1 1.6%	63 100.0%	.900 (.825)
	준비함	32 25.6%	68 54.4%	24 19.2%	1 .8%	125 100.0%	
전체		46	101	39	2	188	
		24.5%	53.7%	20.7%	1.1%	100.0%	

### 자. 입주동기

노후대비에 따라서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한다면 입주하는 동기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4-30>에서 보는바와 같이 전체대상자 가운데 의료서비스와 노인을 위한 서비스 때문이라는 응답자가 56.4%로 나타났다. 노후대비여부에 따라서 살펴보면 준비하지 않고 있는 집단의 경우 의료와 노인을 위한 서비스라고 응답한 경우가 44.4%로 나타났고 준비하고 있는 집단의 경우에는 62.4%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후대비 준비를 하고 있는 집단이 비교적 의료서비스와 노인을 위한 서비스 때문에 입주한다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p < .001$ ).

<표4-30> 노후대비 여부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입주 동기

		노인을 위한 시설의 편리성	의료서비스와 노인을 위한 서비스	경제적인 생활비	자녀의 부담 감소	배우자 없이도 생활 편리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	전체	$\chi^2(p)$
노후 대비 여부	준비안함	15 23.8%	28 44.4%	0 .0%	12 19.0%	4 6.3%	4 6.3%	63 100.0%	21.968* ** (.001)
	준비함	17 13.6%	78 62.4%	6 4.8%	7 5.6%	1 .8%	16 12.8%	125 100.0%	
전체		32 17.0%	106 56.4%	6 3.2%	19 10.1%	5 2.7%	20 10.6%	188 100.0%	

\*\*\*p<.001

## 제7절 분석결과의 논의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나 가족제도가 변하게 되면서 자녀와의 별거를 원하는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후준비를 본인 스스로 해야 한다는 생각에 노후에 대한 책임의식이 더욱 강해지게 되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노후가 길어지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이 증가하고 국가나 자녀들에게 의지하기 보다는 적정한 비용을 주더라도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 받기를 원하는 수요가 급격히 증가되었다. 이로 인하여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현재 노인복지주택보다는 실버타운이라는 이름이 대상자들에게 더 어필되어 있고 그에 따라 가격이 비싸고 누구나 쉽게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데 주목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계층별, 수준별로 적합한 노인복지주택을 개발하기 위한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노후염려요인을 보면 경제적인 문제와 49.5%, 건강문제가 노후에 가장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사회적 측면이나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것이다. 의학의 발달로 길어진 노후에 대한 불안감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저축을 보면 30만원-60만 원미만이 37.2%을 나타내고 있다. 정동근(2002)의 연구결과를 보면 노후대책을 위한 월 저축금액으로 월 20만 원미만이 77.2%의 연구결과로 나왔으며, 윤석경

(2003)의 연구결과에도 20만 원미만이 26.3%가 노후를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퇴직연금을 노후대비 자금으로 사용하고 퇴직연금 외에 따로 저축하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 했지만 불안한 국민연금이나 조기퇴진 등으로 퇴직연금에 대한 기대는 저버리고 있다. 이는 노후에 대한 부양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부양책임은 본인 스스로가 75.5%로 대다수가 노후부양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답변하였다. 과거 효와 부양가족에 대한 전통적 가족주의를 보면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시되었고 장남이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전통적 가치관에서 사회구조의 변화로 본인 스스로에게 있음을 자각하고 있었다. 노인복지주택 개발보급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85%,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생각을 보면 학력이 낮을 수록 경제적여건만 된다면 무조건 입주하겠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는 입지조건이나 시설, 비용 등을 고려한 뒤 결정하겠다고 53.7%로 과반수가 조건을 따져본 후 입주하겠다고 하는 응답을 보였다.

이 연구결과를 보면 현재 경제여건과 노후에 대한 준비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생각도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입주동기로는 의료서비스와 노인을 위한 서비스가 56.4%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시설의 편리성이나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노후를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려는 의욕이 강하고 노후에 가장 염려하는 건강문제와 직결됨을 알 수 있다.

입주시기로는 건강이 악화되어 부양이 필요할 때 42.0%, 고독과 외로움을 느낄 때가 39.3%로 나타났다. 전통적 가족주의의 가치관이 바뀌면서 자녀에게 위탁보다는 스스로 준비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거주형태를 보면 전원주택형을 70.7%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나이가 많을수록, 전문직이나 자영업자, 소득이 높을수록 전원주택형을 선호하는 것은 노후는 쾌적하고 안락한 곳에서 보내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특성별 노인복지주택개발보급이 절실히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노후에 선호하는 가구 수의 선행연구를 보면 남순옥(2006)에 따르

면 거주세대수는 51-100가구 44.2%를 선호하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타났고, 주영석(2008)의 연구결과도 남순옥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100세대 미만과 100-200세대 미만이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30세대 이상이 공동주택 개념으로 인식되고 관리비절약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세대이여야만 이득을 볼 수 있고 소규모 시설일 경우 비용부담의 우려로 세대수를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30가구 미만이 59.9%로 선행연구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선행연구의 경우 지역이 수도권이라는 점에서 착안한 물가기준에서 응답자들이 서울이나 경기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비용등의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앞선 두 연구와는 본 연구가 대조를 이루지만 지방이라는 특수성도 있지만 현대인의 의식변화로 노인의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기를 희망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김광순(2005)의 노후생활비에 대한 질문에 현재 물가 기준 51%(131명)이 1인당 월 91만원 이상의 생활비가 지출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고 연령이 높을수록 고학력 일수록 높게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위의 선행연구들과 내용적인 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노인복지주택 개발보급 필요성에 관한 응답이 85%로 대다수가 노인복지주택의 개발보급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91%로 응답하였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직업에 따라서는 무직 및 주부 집단과 기타 집단의 경우가 필요하다고 100%로 응답하였다.

입주방식으로는 임대형을 선호하였고 입주시 1인 기준 희망 보증금과 월 이용료로는 1000만원 미만과 월 20만원으로 입주하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 직업, 결혼여부, 주거형태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학력과 소득수준에 따라 보증금이나 월 이용료에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분양형으로 하게 되면 분양금액에 대한 비용부담이 있고 비용부담문제가 생기게 되면 누구나 쉽게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존의 실버타운과 같은 비싸다는 인식전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 보증금 1000만 원과 월 이용료 20만 원은 국민연금이나 노후대비로 준비한 저축으로 월 이용료 역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대부분에 나라들이 시설화율을 낮추기 위해 재가복지서비스를 확장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으나 장수함에 따라 병약한 독신노인이 증가하면서 시설화율은 높아갈 수 밖에 없다.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노인들의 소득향상으로 연금제도와 각종 사보험의 준비로 노년에 노인복지주택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선호도가 점점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비싸게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입주노인가구의 경우 경제적능력이 있는 중 상류층 노인들만이 임대나 분양형식으로 노인복지주택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노인복지주택의 비용이 비싸게 공급될 수밖에 없는 것은 높은 토지비용이나 건축비 상승으로 시설이 비싸게 공급될 수 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고 수준 높고 경제적인 가격으로 노인복지주택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재화와 서비스를 배분하는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사회복지의 공급주체가 국가 및 민간비영리기관만이 아니라 개인, 민간영리기관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정부의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영리기관으로까지 의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저소득층에 국한되어 왔던 노인의 공통의 욕구인 건강보호, 주거, 여가선용의 욕구를 전체노인계층에까지 확대실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설 설치자인 민간기업이나 개인에게 정책적 지원이나 세제혜택 등으로 노인이 원하고 민간이나 개인이 원하는 노인복지주택을 개발 보급해야 할 것이다.

## 제 5장 결 론

### 제1절 요약

본 연구는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노후생활의 준비,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인식, 입주방법, 주거환경 등의 선호도에 대한 것을 알아보았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 노인복지주택공급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설공급자에게 시설의 공급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자 하였고. 또한 미래의 노후대책을 위한 수요자들의 주거시설의 정서적인 안정감과 만족도를 높이고 노인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노후에 경제력이 확보될 수 있는 중·장년층인 (30~60세 미만)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240부를 배포하여 240부 모두 회수되었으나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불성실한 답변을 한 53부를 제외한 188부를 통계처리 하였다. 통계처리의 일반적 사항을 보면 남성과 여성이 각각 50%로 같은 비율을 나타냈고 연령대로는 40-49세 미만이 37.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30-39세가 37.2%을 나타냈다 직업에 따라서는 회사원이 43.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전문직과 자영업자가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으로는 대졸과 고졸이 44.7%, 44.1%로 대부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의 월 평균소득은 150-300만 원미만이 36.2%, 300-500만 원미만이 33.5%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노년층의 노후생활에 대한질문에 응답은 노후대책으로 준비하는 것으로는 저축이30.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다음으로는 국민연금과 사적연금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1인 물가기준 노후생활비 물가를 묻는 질문에는 연령별로 보면 30대의 경우 50-150만 원 계획 한다는 응답이 52.9%로 가장 많았고 40대는 150-250만 원이라는 응답이 50.7%, 50대는 150-25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8.3%로 나타나 연령별대별로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노후생활비물가를 많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재 생활비 수준을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 또한 직업별, 소득별, 주거형태에 따라서도 노후생활비가 많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둘째, 노후에 가장 염려하는 사항이 일반적특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경제적문제가 49.5%, 건강문제가 45.7%로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아 경제적문제와 건강문제를 가장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와 판매, 서비스직은 각각 58.1%, 51.7%로 건강문제가 타 직업 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회사원은 경제적 문제로 55.6%가 나타났다. 학력이나 소득, 결혼이나 주거형태등에 따라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것은 노인이 되면 신체적기능의 퇴화나 사회적 역할상실에 대한 염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노후를 대비하여 현재 월 평균 어느 정도 저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일반적특성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는 30만원-60만 원미만이 37.2%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30만 원미만 33.5%, 60-100만 원미만 10.6%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대별, 소득별에 따라 소득과 계획 중인 노후 대비 저축금액이 비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직업이나 주거형태는 대부분 비슷하게 나타났다.

노후부양책임에 대한 응답은 본인 스스로가 75.5%, 다음으로는 국가 및 사회가 20.2%로 나타나 대부분 본인과 국가의 책임이라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89.4%가 본인책임이라는 응답을 한데 비해 남성은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33.0% 남녀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직업에 따라서는 전문직은 본인스스로가 90.3% 판매서비스직은 96.6% 타 직업보다 높게 나타났고 회사원은 국가 및 사회가 37.0% 타 직업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이나 주거형태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자녀와의 동거에 대한 의견이 일반적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동거하지 않겠다가 61.2%로 과반 수 가 넘는 비율을 보여 노후에 자녀와 동거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동거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연령이 높을수록 처음에 동거하다가 복지시설이나 유료시설로 입주하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 보면 전문직과 판매 서비스직의 경우에 동거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77.4%, 79.3%로 대다수 응답하여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력이나 소득, 결혼여부, 주거형태에 따라서는 각 집단이 서로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셋째, 노인복지주택에 개발보급 필요성에 대해 일반적 특성별 구분된 집단의 차이를 살펴보면 필요하다는 경향의 응답이 약 85%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대부분 개발보급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특히 여성일수록 나이가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노후대비유무에 따라서도 개발이 필요하다는 높은 반응이 나왔다.

넷째,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생각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입지조건이나 시설, 비용 등을 고려한 뒤 결정하겠다는 응답이 53.7%로 과반수가 조건을 따져본 후 입주하겠다는 응답을 보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는 지금으로서는 잘 모르겠다는 27.7%로 여자의 13.8%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여자는 입지조건이나 시설, 비용 등을 고려한 뒤 결정하겠다는 57.4%로 남자의 50.0%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이 낮을수록 경제적 능력만 된다면 무조건 입주하겠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학력이 높을수록 입지조건, 시설, 비용 등을 고려한 뒤 결정하겠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결혼여부에 있어서 기혼집단은 입지조건, 시설, 비용 등을 고려한 뒤 결정하겠다는 응답자가 각각 62.5%, 5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사별 또는 이혼에 해당하는 집단은 경제적 능력만 된다면 무조건 입주하겠다는 응답자가 42.9%로 나타나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입주동기로는 의료서비스와 노인을 위한 서비스가 56.4%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시설의 편리성이나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먼저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은 의료서비스와 노인을 위한 서비스가 62.8%, 여성은 노인을 위한 시설의 편리성이 20.2%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30대의 경우 의료서비스와 노인을 위한 서비스라고 응답한 경우 48.6%, 40대와 50대가 62.0%와 59.6%로 나타났다. 직업에 따라서는 기타집단은 자녀의 부담감소가 50.0%가 가장 많았고 판매 서비스직의 경우에는 의료서비스와 노인을 위한 서비스가 48.3%로 많았

다. 학력, 소득별, 결혼여부, 주거형태에 따라서 의료서비스와 노인을 위한 서비스가 높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다섯째, 입주 시기는 건강이 악화되어 부양이 필요할 때 42.0%와 고독과 외로움을 느낄 때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업에 따라서는 무직및 주부, 회사원, 전문직의 경우에는 건강악화로 부양필요시가 각각 83.3%, 49.45%, 38.7%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자영업자는 연령이 많아 고독과 외로움 느낄 때가 51.6% 판매, 서비스직은 51.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혼여부에 따라서는 미혼은 연령이 많아 고독과 외로움을 느낄 때가 50.0%, 이와 달리 기혼과 사별 또는 이혼은 자식 출가 이후가 42.9%로 타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주거형태에 따라서는 단독주택은 건강악화로 부양 필요시가 51.6%로 타 형태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아파트는 연령이 많아 고독과 외로움 느낄 때가 39.3%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직업이나 연령별, 소득별로는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입주방식과 입주시 비용부담으로는 임대방식이 68.1%와 전세임대형48.4%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료로는 1000만 원미만이 42.6%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여자가 50.0%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1인기준이용료 20만 원미만이 6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거주하길 원하는 주거 형태로는 전원주택 형이 70.7%, 아파트형이 18.6%로 대부분 전원주택 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는 전원주택 형이 74.5%, 여자는 67.0%나타났다. 학력에 따라서는 중졸인 집단은 전원주택 형을 선호하는 경우가 87.5%, 고졸과 대졸의 경우에도 전원주택을 선호하는 응답자가 69.9%, 75.0%를 보였다. 이와 달리 대졸이상의 경우에는 아파트형과 전원주택 형이 각각 38.5%씩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 직업별, 소득별로는 모두 전원주택 형을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노인복지주택의 적당한 가구 수로는 30가구 미만이 55.9%,30-60가구 미만이 33.0%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30가구만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낮을수록 30-60가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중졸은 30가구 미만이 100.0%로 나타났고 고졸과 대졸인 집단에서는 각

각 55.4%, 5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대졸 이상의 집단에서는 30-60 가구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3.8%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직업이나 소득, 주거형태, 결혼여부 등은 대부분 비슷하게 나타났다. 입지환경으로는 도시근교 형이 55.9%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전원형31.4%, 도시형 12.8%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소득, 주거형태 등에 따라서도 도시 근교 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2절 연구의 함의

중·장년층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인식의 변화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준비되지 못한 노후에 대한 불안감 역시 늘어나고 있다. 생활환경과 의식 등의 변화로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인식이나 선호도 역시 높았지만 보편화 되지 못한 입주비용등의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현재의 생활선상에서 노후를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수명이 짧았던 과거와는 달리 길어진 노후에 대한 준비와 노후에 자녀와 동거를 원하지 않는 중·장년층들의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구조의 변화로 본인 스스로 노후를 준비 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노후대비에 관하여서는 상당히 위축되어 있음을 조사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자는 이 조사를 통하여 30대에 있는 중·장년층들에게 노후에 대한 심각성과 노후에 대한 준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또한 사회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본 설문을 통하여 인지 시켜줬다는데 큰 의의를 가졌고, 중상층만을 위한 노인복지주택개발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비용부담 없이 편안하게 노후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이 개발되어야 한다. 선행연구에서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의 구매비용을 국가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국가만을 의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응답자들의 반응을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는 최소한의 준비는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복지주택의 선호도가 점점 높게 나타남에 따라 수익성 보장 및 입주노인 보호가 되는 노인주택개발에 민간참여를 위한 보조금지급이나 저리융자, 세제상혜택 등 지원방안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시설설립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요공급자가 만족할 만한 적정시장가격 형성이 필요하고 기존 고령자 주택을 무장애 주택이나 연립주택으로 개·보수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셋째, 건강이 악화되어 누군가로부터 부양이 필요할 때 찾는 곳이 아니라 경제적 부담이 적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국가에서는 전문 의료시설의 체계화와 입주자의 다양한 욕구에 따라 취미강좌나 편의시설로 입주자의 생활의 질이나 건강을 책임져야 한다.

이와 같이 사회적인 여건, 입주자의 건강문제, 경제적인부분을 해결 할 수 있는 저렴하고도 수준 높은 노인복지주택을 민·관 합동하여 개발 보급해야 한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김동배·권중돈, 인간행동이론과 사회복지실천, 학지사, 2005
- 김재일 외, 노년학의 이해, 대영문화사, 2001
- 김태일, 노말라이제이션(Normalization)의 이념실천을 위한 고령화사회의 주거공간학, 보고서, 2008
- 박희서/ 김구,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오정수·류진석, 지역사회복지론, 학지사, 2004
- 오쿠마 유키코(노명근·노혜련 옮김) 노인복지 혁명, 예영 커뮤니케이션, 2007
- 이용교, 디지털 사회복지개론, 인간과 복지, 2005
- 정무성·정진모,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양서원, 2001
- 채서일, 사회과학조사방법론(3판), 비.앤.엠.북스, 2005
- 최성재, 장인협, 개정판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 최순남. 현대노인복지론, 법문사, 2005

## 2. 학위 논문

- 강수연, 중소도시에 적합한 유료노인주거시설 개발을 위한 예비노년층의 선호성향조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김광순, 한국의 고령화에 따른 유료노인복지시설이용 욕구, 아주대학교 행정학 석사학위논문, 2005
- 김달수, 한국유료노인복지시설의 활성화 방안(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과 유료노인의료복지시설을 중심으로)'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 김정훈, 한국노인주거복지시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민간과 공공 부문의 역할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 남순옥, 중장년층의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선호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노인복지전공 석사학위논문, 2006
- 류지수, 베이비붐세대의 주거선호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
- 박미영, 청소년의주거가치와 주거선호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 김한나, 중년층의 노후대비수준에 따른 주거선호의식에 대한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박하정, 사회복지정책결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 배남순, 노인공동주거시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 석사학위논문, 2004
- 손명숙, 노인복지시설 운영실태 및 서비스 만족도 분석(대구광역시 주거복지 및 의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 오세진,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정책학과 행정학 석사학위 논문, 2001
- 윤석경, 중·장년층 세대의 유료노인주택 욕구에 관한 연구(구청공무원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 윤점숙, 노인의 여가활동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8
- 이수민, 도시거주부부의 생활의식과 주거선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2003
- 이영래, 아파트구매에 미치는 주거선호 영향요인,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이제모, 노인복지시설 운영실태 및 서비스 만족도 분석(대구광역시 주거복지 및 의료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 정동근, 유료노인복지시설 수요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여주군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2006
- 정재영, 유료양로시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정정광, 노인들의 노인복지시설 선호도에 관한연구, 대구한의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조남규,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의식 및 선호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보경 [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입주의식 및 선호도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주영석, 노인복지주택의 공급과 지원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주정주, 실버타운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 2006
- 한송이, 노인의 주거환경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원, 2005



홍오식, 중년층의 실버타운 인식에 관한 연구, 위덕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5

황경희, 청소년의 주거가치와 주거선호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3. 간행물

노년시대신문

보건복지부 사회통계조사, 2007

시니어스 타임즈

한국경제신문, 2008

한국실버산업신문

한국요양복지신문

# ABSTRACT

## A Study on Housing Senior Preference of the Middle-Aged and the Elderly - Focusing on Senior Welfare House -

Lee Kwqng Sun

Advisor : Prof. Oh Eul-im Ph.D.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Nowadays our country highlights the need only for the development and the distribution of the silver industry or the senior citizens' well-fare and housing facilities. But the distribution of the facilities is still in the first stage. Private enterprises have not revitalized the towns for the aged and the towns are considered to be expensive, while the damage of the residents by becoming the bankrupt of the construction enterprises has caused more and more strong distrust for the private enterprises.

Today's young-decreasing-but-old-increasing structure of our country shows that the social burden of the young who have to support our country is getting heavier and heavier. This structure is making the senior citizen's problem more and more serious. As the wants for the house, one of the common desires of the elderly, are the material necessities for maintaining their existence, private enterprises and the government have to divert the recognition of distrust, cooperate each other to

develop the senior citizens' well-fare and housing facilities.

In order to overcome this problem, it is not necessary to develop facilities only for the existing middle class but necessary to develop the differentiated facilities which anyone can move in and spend his or her comfortable old age in. Therefore in this research I regard the inexpensive senior citizens' well-fare houses made by the private enterprises as the preferred custom-made well-fare housing development project. The following is about the housing preferences.

This research showed that someone who has economic power in the old age, is in the 30-under 60 age, and lives in Gwang-ju, was questioned by an age group. Each age group was given 80 copies. All of them were 240 copies. They are randomized. There will be different viewpoints for the senior well-fare and housing from various-aged people and from their present situation of either they have prepared for the old age or no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o live a happy life of the old age in the pre-aging citizens, they think that savings is the highest. Its rate is 30.3 percent, then comes a national pension and private pension in that order.

Second, the most anxiety in the old age is the economic problem. Its rate is 49.5 percent and then comes health problem. Its rate is 45.7 percent. That's because the old feel the uneasiest about their economic problem and health problem. At this, It showed us that we were worried about the degeneration of the physical function and the loss of social role when old.

Third, In the answer to the responsibility supporting the old age, to live without other's help is 75.5 percent, not to live with their children 61.2 percent. As a result, they had the most reply not to live with their offspring when old.

Fourth, if you looked into the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which were divided generally, specially about the necessity for the developing and distributing in the

senior citizen's well-fare housing, it was found that the necessity for the developing and distributing in the senior citizen's well-fare housing was about 85 percent.

Fifth,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the analyzing result of the senior citizen's well-fare housing was as follows. 53.7 percent of them said, after considering the conditions of location, facilities, and the cost, they would decide. As an inducement to move in, medical service and the service for the old are highest. Its rate is 56.4 percent. 42.0 percent said they would move in when they are in sick condition, 36.2 percent saying when they are lonely.

Sixth, the type of the housing of the old who wanted to live in was the country housing. Its rate is 70.7 percent. The number of the fitting family of the senior citizen's well-fare housing was less than 30 families. Its rate is 55.9 percent. 30-under 60 families is 33.0 percent. As for the environment to move in, the type of suburban cities is 55.9 percent. then came country type in that order. Its rate is 31.4 percent.

It can be inferred from the survey that the facilities are not the place you go when you're in ill condition or when you need others' support but the place which could lessen the economic burden, keep the senior citizens' health, and could be spent more comfortable and easier old age in. It was the necessary that the government authorities should systematize a special hospital facilities, have the responsibility of the quality of life or health of the old who moved in the housing through the various lectures on artistic topics or convenient facilities. As the highest preferences are for the senior citizens' well-fare housing, it needs more national backing ways such as insuring profits to the private enterprises, furnishing the old with government subsidies, loan at cheap interest, and tax favors.

We have found tha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housing preferences of the elderly who lived in big city and those of the small towns. Thus I thought that each area needed its fitting a relay of facilities. For that reason, I have studied the

housing preferences limited the city of Gwang-ju. At this, I hope that a private enterprise or an individual will develop or distribute the fit facilities of the housing preference in Gwang-ju. For that object, this thesis will hold the actual proof of great worth.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설문지는 「중·장년층의 노후주거 선호도에 관한 연구」 논문 준비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중·장년층세대의 노인복지주택개발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분석하여 향후 노후주거 발전에 필요한 자료로 사용 될 것이며, 또한 자료의 결과는 순수한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본 자료는 무기명으로 통계 처리되며. 개인적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바쁘신 중에 끝까지 응답해주신 귀하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08년 10월 28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이광선  
지도교수 : 오을임  
연구자 : 이광선  
면접자 : 이광선  
면접일시 : . . .

**I 귀하의 일반적 사항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V)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① 30 - 39세미만 ② 40 - 49세미만 ③ 50 - 59세미만 ④ 60세 - 70세미만
  
3. 귀하의 직업은?







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③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 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008. 4. 4일부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명칭을 ->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주택으로 통합 개편하였다.

### III. 다음 항목은 귀하의 노인복지주택의 인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V)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귀하께서는 노인복지주택을 개발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 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다                    ⑤ 매우필요하다

16.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① 경제적 능력만 된다면 무조건 입주 하겠다  
② 입지조건, 시설, 비용 등을 고려한 뒤 결정하겠다.  
③ 지금으로서는 잘 모르겠다.  
④ 입주할 의사가 전혀 없다.

17. 만약 귀하께서 노인복지주택에 입주의사가 없으시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입주의사가 없으신분만 응답해 주세요)

- ① 집단 수용소라는 기분 때문에  
②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기 싫어 입주시켰다는 사회적 통념 때문에  
③ 입주비용 및 생활비가 비쌀 것 같기 때문에  
④ 공동생활보다는 개인의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생활이 편하기 때문에

⑤ 자식들과 함께 살기 위하여

18. 귀하께서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하신다면 입주 동기는 무엇입니까?

- ① 노인을 위한 시설의 편리성으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 ② 건강상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노인을 위해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 ③ 일반주거시설에서 단독으로 생활하는 것보다 생활비가 적게 들 것 같아서
- ④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 ⑤ 배우자가 없더라도 생활의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서
- ⑥ 건강한 생활과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 ⑦ 기타( )

**IV. 다음은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노인복지주택의 입주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V)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의사가 없으신분은 체크사항이 아닙니다 )**

19.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하신다면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 ① 자식을 출가시킨 이후    ②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 ③ 건강이 악화되어 누군가로부터 부양이 필요한 때
- ④ 연령이 많아 고독과 외로움을 느낄 때
- ⑤ 기타( )

20. 귀하께서는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입주방식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 ① 분양방식    ② 임대방식    ③ 이용권 방식    ④ 기타

21. 귀하께서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주 시 비용부담은 어떤 유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